



국제구조위원회

## 2026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

# 새로운 세계, 무너진 질서

- 01 수단
- 02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 03 남수단
- 04 에티오피아
- 05 아이티
- 06 미얀마
- 07 콩고민주공화국
- 08 말리
- 09 부르키나파소
- 10 레바논



# 목차

|                                    |    |
|------------------------------------|----|
| 머리말                                | 05 |
| 한눈에 보기                             | 06 |
| 2026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 주요 수치             | 08 |
| 새로운 세계, 무너진 질서                     | 10 |
| 냉혹한 현실: 국제 원조 축소와 위기의 악화           | 12 |
| 새로운 세계, 무너진 질서: 위기를 부추기는 분열된 국제 질서 | 20 |
| 앞으로 나아갈 길: 무질서한 세계를 위한 10가지 권고사항   | 26 |
| <br>                               |    |
| 2026 세계 위기국가 프로필                   | 34 |
| 01 수단                              | 36 |
| 02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 38 |
| 03 남수단                             | 40 |
| 04 에티오피아                           | 42 |
| 05 아이티                             | 44 |
| 06 미얀마                             | 46 |
| 07 콩고민주공화국                         | 48 |
| 08 말리                              | 50 |
| 09 부르키나파소                          | 52 |
| 10 레바논                             | 54 |
| <br>                               |    |
| 10위권 밖 10개 세계 위기국가                 | 56 |
| <br>                               |    |
| 연구방법론                              | 60 |
| 감사의 말                              | 62 |

표지: 수단 옴두르만(Omdurman)의 파괴된 지역을 한 남성이 지나가고 있다. 인구 3,37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단은 올해로 3년 연속 세계 위기국가 1위를 기록했다.  
왼쪽 사진: 수단에서 피난한 난민인 한 어머니와 아들이 차드 아드레(Adré)의 임시 거처 옆에 서 있다. 이들은 2023년 4월 잔혹한 분쟁이 발발한 이후, 수단을 떠난 수십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일부다.



국제구조위원회 데이비드 밀리밴드 총재와 직원들이 수단 나일강주(River Nile State) 알나흐다 보호소에서 국제구조위원회의 고객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 국제구조위원회는 2023년 이후, 분쟁으로 삶의 터전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 현금 지원과 의료서비스, 식수 제공을 중심으로 대응을 확대해왔다.

# 머리말

국제구조위원회(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IRC)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도전적인 상황 속에서 올해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단 1년 만에 예산 4억 달러를 삭감해야 했던 적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2025년, 우리는 이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원조 축소가 가장 큰 타격이었지만, 다른 국가들 역시 국제 원조 지원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국제 인도주의 재정 공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올해도 이 보고서를 발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며, 현장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해결책에 집중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정을 안정화했고, 위기 현장을 향한 헌신은 오히려 더 확고해졌습니다.

취약 국가들의 고통은 이 보고서 곳곳에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관도 그 고통을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200만 명이 지원의 손길을 잃었고, 6,000명의 동료가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16,000명의 동료들은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가장 열악한 현장에서 사람들을 돕고, 새로운 재원을 찾아내며, 끊임없이 혁신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담고 있는 새로운 세계 무질서에 맞서, 이를 막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국제 원조 축소와 재헌신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 흐름은, 세계 최악의 인도적 위기 현장인 수단을 최근 방문하면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수단 동부에 있었기에 다르푸르의 참혹한 학살 생존자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내전으로 삶이 무너진 여러 지역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겪은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지만, 더 나은 삶을 향한 열망 또한 뜨거웠습니다. 아트바라 의료센터에서 만난 한 어머니는 눈앞에서 남편이 살해당하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만큼은 반드시 대학을 졸업시키겠다는 다짐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단은 올해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 1위입니다. 그리고 비극적이게도, 인도적 위기와 관련된 거의 모든 지표에서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상태로 방치된 곳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례 없는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고서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근본적인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그중에서도 ‘전쟁의 경제학’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전쟁의 경제학은 기온 상승, 실패하는 평화 협상, 처벌 받지 않는 폭력이 고착화되는 흐름과 맞물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분쟁은 손실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오늘날 전쟁을 일으키는 동기는 인도주의의 가치와 정면 충돌합니다. 우리는 마법 같은 해법을 제시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구조적 힘에 맞서지 않는 한, 그 어떤 해결책도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가 말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고객들(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입니다. 국제구조위원회가 정치적 제스처를 내려놓고 현장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도주의적 책무입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 고객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이들과 협력하기 위한 ‘공동의 출발점’입니다.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함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권고안은 상상이 아닌 증거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세계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될수록 공감은 오히려 분열되고, 필요는 커질수록 지원은 철회되고 있다는 가장 심각한 이 현실을 바로잡고자 하는 모든 이들과의 논의를 환영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결코 불가피한 것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직면하고, 도전하며, 되돌려야 합니다.

데이비드 밀리밴드  
국제구조위원회 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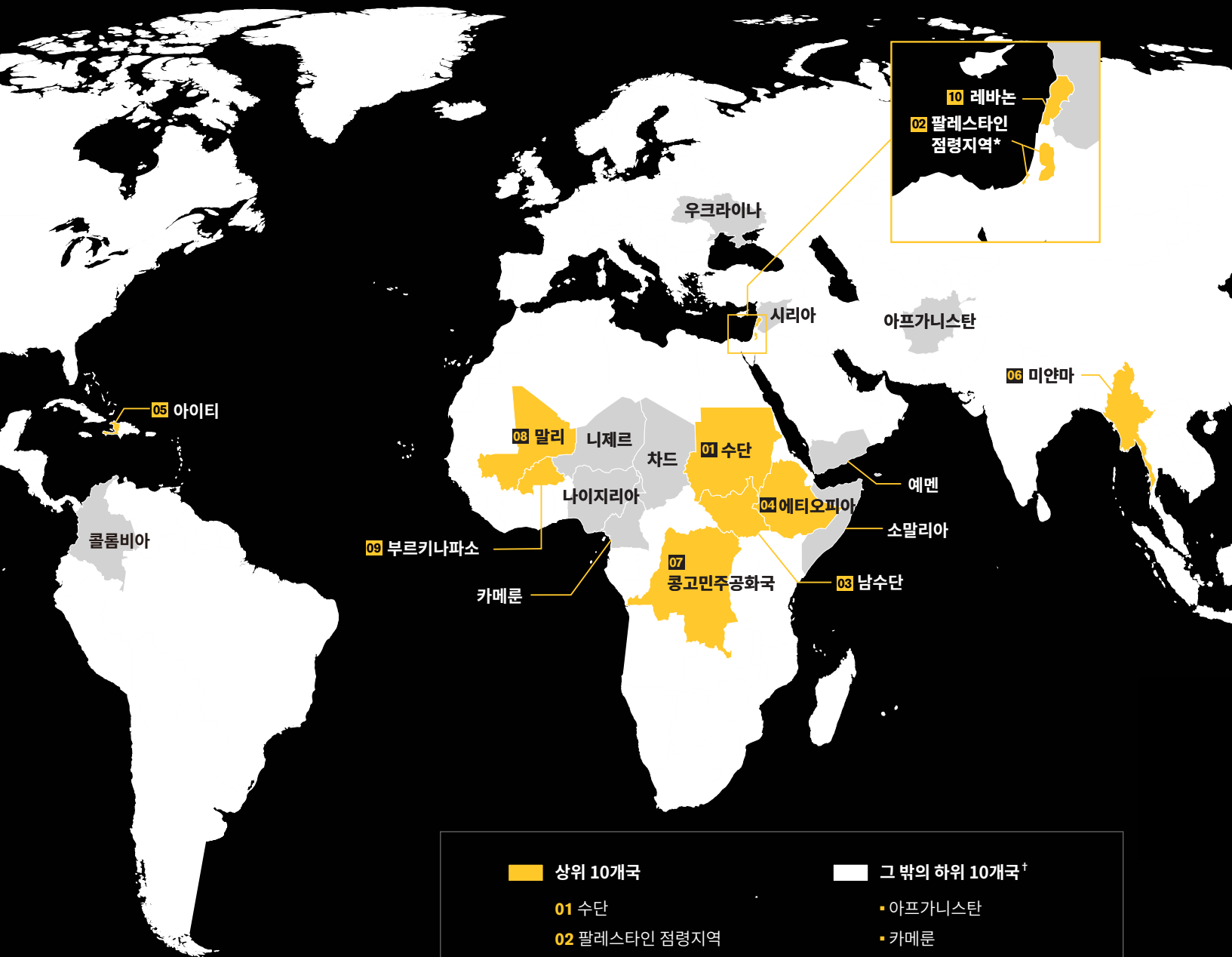
# 한눈에 보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Emergency Watchlist)는 국제구조위원회(IRC)가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될 위험이 가장 큰 20개국의 인도적 위기를 평가하는 연례 보고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엄격한 분석 과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74개의 정량·정성 변수를 활용하고, 40개국 이상에서 활동하며 축적한 국제구조위원회의 경험에서 나온 질적 통찰을 더해, 어떤 국가를 목록에 포함할지, 순위는 어떻게 매길지 결정합니다. 매년 이 방법론을 통해 국제구조위원회는 다음 해 가장 심각한 인도적 상황의 악화를 겪게 될 국가의 85~95%를 정확히 식별해 왔습니다.

올해의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는 전례 없는 순간에 발표되었습니다. 보고서의 주제인 ‘새로운 세계, 무너진 질서(New World Disorder)’는 위험한 괴리에 대해 경종을 울립니다. 인도적 위기는 급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자원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 고객들이 직면한 급증하는 위기와 축소되는 지원은 단순한 인도적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국가 간 상호작용 방식을 재정의하고 있는 지정학적 추세가 낳은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올해 보고서에 담긴 ‘새로운 세계, 무너진 질서’는 국제구조위원회 팀들이 매일 목격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 위기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생존하고, 회복하며, 미래를 재건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현장의 사실들은 인도주의 체계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순간에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 줍니다. 분쟁은 기후변화와 뿌리 깊은 빈곤으로 인해 극적으로 격화되고 있는 반면, 글로벌 원조 재원은 붕괴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10가지 권고안은 이러한 무너진 질서가 초래하는 엄청난 부담으로부터 20개 위기국가의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미래를 위한 더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 상위 10개국

- 01 수단
- 02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 03 남수단
- 04 에티오피아
- 05 아이티
- 06 미얀마
- 07 콩고민주공화국
- 08 말리
- 09 부르키나파소
- 10 레바논

#### 그 밖의 하위 10개국<sup>†</sup>

- 아프가니스탄
- 카메룬
- 차드
- 콜롬비아
- 니제르
- 나이지리아
- 소말리아
- 시리아
- 우크라이나
- 예멘

\* 유엔은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를 지칭할 때 '팔레스타인 국가(State of Palestine)'와 '팔레스타인 점령지역(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을 혼용해 사용합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OCHA) 및 다수의 국제 인도주의 기구와의 일관성을 위해 '팔레스타인 점령지역(oPt)'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 알파벳순

# Key Facts

## 2026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 주요 수치

세계 위기국가 20개국이 차지하는 비율

12%

전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80%

전 세계 안전을 찾아 삶의 터전을 떠난 사람들에서 차지하는 비율

50%

전 세계 극심한 빈곤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89%

전 세계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18개국

2025년 분쟁 사망자 1,000명 초과 국가



44%

2024년과 2025년 사이, 분쟁 지역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한 공격 증가율



2억 3,900만 명

전 세계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



미화 311억 달러 감소

2025년 기준, 개발원조위원회(DAC) 주요 17개 회원국의 원조 규모 축소 전망



50,000명

2024년 분쟁 사망자 (대부분 민간인)  
전년 대비 40% 증가



1억 1,730만 명

분쟁·폭력·박해로 인해 강제로 삶의 터전을 떠난 사람들



1,000명

2025년 상반기 의료 서비스 찾던 중 사망자  
전년 동기 대비 약 60배



83%

2025년 1~3월,  
미국 국제개발처(USAID) 프로그램  
83% 취소(의료 프로그램 예산 포함)



1% 미만

분쟁·기후 취약국의 기후 적응에 사용되는  
전 세계 기후 재원 비중



25%

극심한 빈곤에 처한 인구의 50%가 거주하는  
분쟁국 및 취약국들에 배정되는 원조 비중



**71%** 전 세계 강제이주민 중 저중소득 국가에 머무르는 인구 비율  
(유럽·미국 도달 비율은 극히 제한적)



**44%**

2025년 분쟁 사망자 1,000명을  
초과한 무력 분쟁 중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분쟁 비율



**6개국**

2025년 기준, 기아로 인한 사망이  
정기적으로 확인된 **재난 수준(IPC 5단계)**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의 수



**87%**

2022-2024년 사이 분쟁 관련 성폭력  
공식 기록 사례 증가율

**49회**

2016-2025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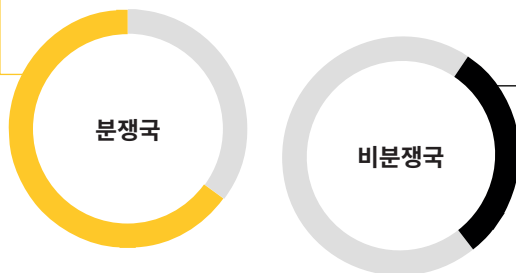


이전 10년간 **19회**에 불과



**70%**

분쟁을 겪는 국가에서 폭력을 경험한 여성 비율  
(비분쟁 국가의 경우 35%)



**61회**

2024년 전 세계에서 기록된 무력 분쟁 수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다

국제구조위원회는 차드 파르사나(Farchana)에 위치한  
수단 난민 정착촌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모래폭풍과 폭우, 그리고 극심한 폭염에  
직면해 있습니다.



# 새로운 세계, 무너진 질서

국제구조위원회의 2026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는 인도적 위기가 악화되는 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원조는 붕괴하고 있는 위험한 괴리에 경종을 울립니다. 국제구조위원회가 활동하는 위기지역에서는 재앙적인 수준의 식량 불안정이 확산되고, 기록적인 규모의 강제이주가 이어지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무장 분쟁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원조는 축소되고, 공동 대응을 가능하게 했던 세계적 협력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흐름이 결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님을 분명히하며,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돌아갈 것임을 경고합니다.

가자시티 셰이크 라드완(Sheikh Radwan) 지역에서 한 팔레스타인 소년이 파괴된 건물 잔해 옆을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고 있다.



2026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가 제시하는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국제구조위원회가 지원하는 고객들이 직면한 악화되는 위기와 축소되는 지원은 단순한 인도적 실패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 간 관계를 재편하고 있는 지정학적 변화가 만들어낸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규범 기반 국제 질서와 체제는 언제나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 왔으며, 그 영향은 특히 위기의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질서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에 포함된 20개국은 전 세계 인구의 약 12%가 거주하는 지역이지만, 전 세계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벌어지는 참담한 현실은 우리가 더욱 위험한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지금 세계는 무너진 질서의 징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세 가지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더 많은 지정학적·지역 강대국들이 영향력 확대를 위해 경쟁에 나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갈등 구도와 위험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둘째, 안정적이고 장기적이었던 동맹이 단기적 이해에 따라 수시로 재편되면서 격동의 세계를 살아가는 국가와 사회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 이익과 세력 중심의 거래가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마저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세계 속 무너진 질서는 올해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에 포함된 국가들의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전 지구적 유인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극화된 권력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거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 추구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익과 세력을 위한 분쟁은 점점 더 정당화되고 있으며, 개인의 기본권과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포함된 20개 위기국가의 지역사회는 이러한 지정학적 격변의 중심에 놓여 있지만, 그 영향은 결코 국경 안에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년 안에 위기국가 안팎에서 수백만 명의 더 많은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 무너진 질서가 초래할 최악의 결과로부터, 특히 위기국가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지역사회가 생존을 넘어 회복하고, 자신의 미래를 재건할 수 있도록, 새롭게 형성되는 세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올해 보고서는 이처럼 냉혹한 위기 현실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 배경에 놓인 지정학적 동인을 분석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어지는 10가지 권고사항은 이 새로운 세계 속 무너진 질서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미래를 위한 보다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단계들을 담고 있습니다.

# 냉혹한 현실

## 국제 원조 축소와 위기의 악화

이 보고서의 분석은 국제구조위원회가 전 세계 40개국 이상에서 활동하며, 위기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생존하고 회복하며 자신의 미래를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에서 매일같이 목격한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현장에서 마주하는 냉혹한 사실은 분명합니다. 인도적 위기는 악화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지원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괴리는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세계, 그리고 무너진 질서가 낳은 결과이며, 국제구조위원회가 지원하는 지역사회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프 1

### 2030년까지 극심한 빈곤에 처한 인구의 대다수는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에 포함된 20개국에 거주하게 될 전망

출처: World Data Lab

#### 2016년 극심한 빈곤에 처한 인구 비율



## 악화되는 위기

가장 도움이 절실한 순간에 인도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현장에서 분명히 목격되고 있습니다. 분쟁은 기후변화와 구조적인 빈곤과 맞물리며 급격히 격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전례 없는 규모의 복합적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이주, 식량 불안정, 인도적 지원 수요는 극단적인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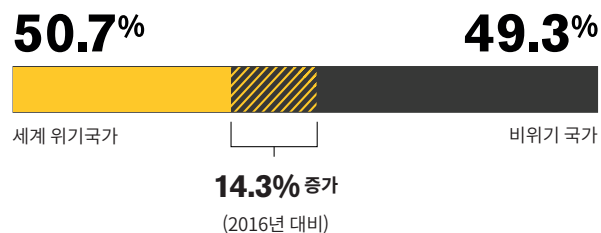
#### ■ 분쟁의 규모와 강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전 세계 무장 분쟁의 수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어느 때보다 많은 전쟁을 경험하고 있으며, 전 세계 인구 8명 중 1명은 무장 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분쟁은 최근 수십 년간의 분쟁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장기화되며, 더 치명적인 양상을 띠고 있어 전례 없는 인도주의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2026년 글로벌 인도주의 개요에 따르면, 이러한 피해는 위협에 노출된 지역사회에 집중된 극심한 빈곤과 기후위기의 충격과 맞물리며 인도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전 세계적으로 **2억 3,900만 명**, 즉 전 세계 인구 34명 중 1명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 상위 5개국에서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가 전체적으로 약 500만 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해당 국가들의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일부 위기국가가 전 세계 인도적 위기의 불균형적으로 큰 부담을 떠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전 세계 인구의 **12%**만이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에 포함된 20개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가 차지하는 인도적 지원 필요 인구는 전체의 **89%**에 달합니다.

극심한 빈곤 역시 위기국가에 불균형적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극빈층 인구는 2015년 약 10억 명에서 2025년 기준 **8억 3,100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에 포함된 국가와 같은 분쟁 영향국에서는 오히려 극빈층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빈곤 감소의 진전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전망에 따르면 2029년까지 이 20개국의 인구는 전 세계 극빈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불과 10년 전 약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극빈층의 집중도가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sup>1</sup>

#### 2023년 극심한 빈곤에 처한 인구 비율



1 8억 3,100만 명이라는 수치는 하루 3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수를 기준으로 한 세계은행(World Bank) 최신 자료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현재 적용되는 극심한 빈곤의 기준선입니다. 다만 자료 가용성의 한계로 인해,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 분석팀은 위기국가에서 극심한 빈곤에 처한 인구 비율을 산출할 때 하루 2.15달러 미만이라는 이전 기준선을 사용했습니다.

- **분쟁 해결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지난 반세기 어느 때보다 종전 사례가 줄어들면서, 많은 지역사회가 끝없는 폭력의 악순환에 갇히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새로 발생한 분쟁의 **70%** 이상이 1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이는 이전 수십 년과 비교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또한 전 세계 평화 노력과 관련해 **PA-X** 평화협정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1990년 이후 모든 유형의 평화협정 체결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분쟁의 핵심 쟁점을 다루며 실질적 해결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 평화협정의 감소가 두드러집니다.

다만 분쟁의 핵심 쟁점을 다루어 갈등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포괄적’ 평화협정의 체결 건수는 특히 크게 감소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체결된 포괄적 평화협정은 7건에 불과했으며, 이는 직전 5년간의 20건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는 평화 노력이 완전히 중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 분쟁을 추동하는 핵심 쟁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 외교가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 배경에는 전쟁이 점점 국제화되며 해결이 어려워지고, 많은 분쟁이 순수한 정치적·영토적 야망을 넘어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형성되고 지속되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합의된 휴전 사례들, 예를 들어 가자지구의 휴전이 시간이 지나 포괄적 평화협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근본적인 쟁점이 해소되지 않아 분쟁 재발의 위험만 높일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과제입니다.

- **분쟁에 대한 외부 개입은 폭력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자국 국경을 넘어 분쟁에 관여한 국가는 **98개국**으로, 2008년의 59개국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독 개입뿐 아니라 연합군 참여와 평화유지군 파병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44개국 중 **36개국**이 외부 전쟁에 관여했으며, 이는 2002년부터 2006년 사이 해당 지역에서 외부 분쟁에 연루된 국가가 7개국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급격한 증가입니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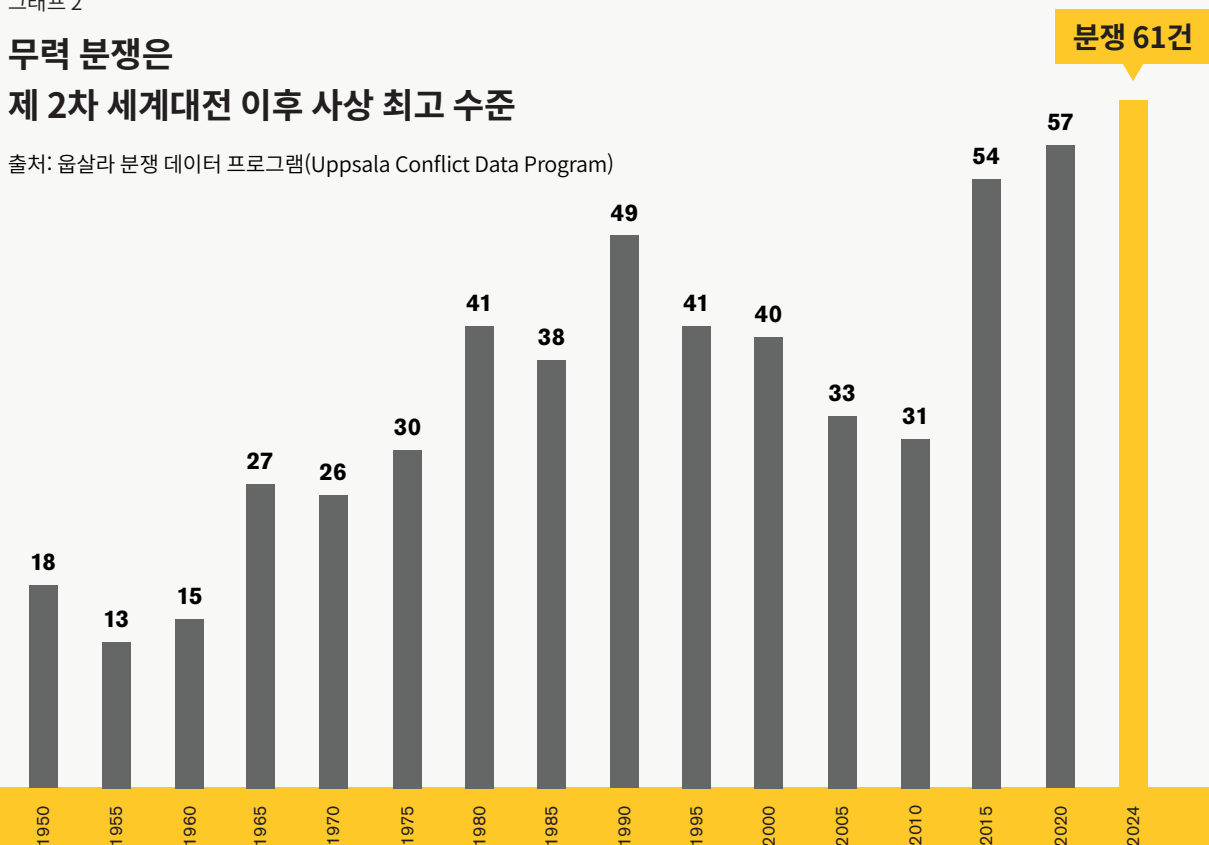
이러한 추세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콩고민주공화국입니다. 2025년 유엔 전문가들은 르완다, 우간다, 부룬디 등 세 개 주요 지역 강대국의 군사력이 분쟁에 직접 개입하고 있으며, 유엔과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가 각각 주도하는 두 차례의 다국적 개입이 추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들 개입에는 총 10개국이 더 관여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에서 이어지고 있는 장기 분쟁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분쟁 해결을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기도 합니다. 평화협정을 논의할 때 고려해야 할 이해관계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분쟁을 종식시키는 과정은 더욱 복잡해지고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2 출처: 경제와 평화를 위한 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의 2025 글로벌 평화 지수(Global Peace Index 2025)

그래프 2

## 무력 분쟁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사상 최고 수준

출처: 욥살라 분쟁 데이터 프로그램(Uppsala Conflict Data Program)



■ 오늘날 많은 국내 분쟁은 더 이상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단이나 미얀마처럼 흔히 ‘국내 분쟁’으로 분류되는 전쟁조차, 무기와 자금, 외교적 보호를 제공하는 외부 행위자들의 개입은 폭력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분쟁은 경제·외교 네트워크와 지역·국제적 경쟁 구도 속으로 점점 더 깊숙이 편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적 이해관계가 겹치면서, 폭력을 끝내기보다 유지하려는 정치·경제적 유인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외부 행위자들이 제공하거나 확산시키는 군사 기술 역시 민간인 피해를 확대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장 드론처럼 거의 모든 위기국가에서 사용되는 기술에 대한 접근이 확대되면서, 민간인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고마(Goma)에서의 삶은 하루가 다르게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불안은 계속되고, 평화는 손이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경제 위기는 생활 전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은행은 문을 닫았고, 식료품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우리처럼 운 좋게도 아직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도 겨우 버티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는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먹을 것을 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매일 싸워야 합니다.

#### — 장 클로드 카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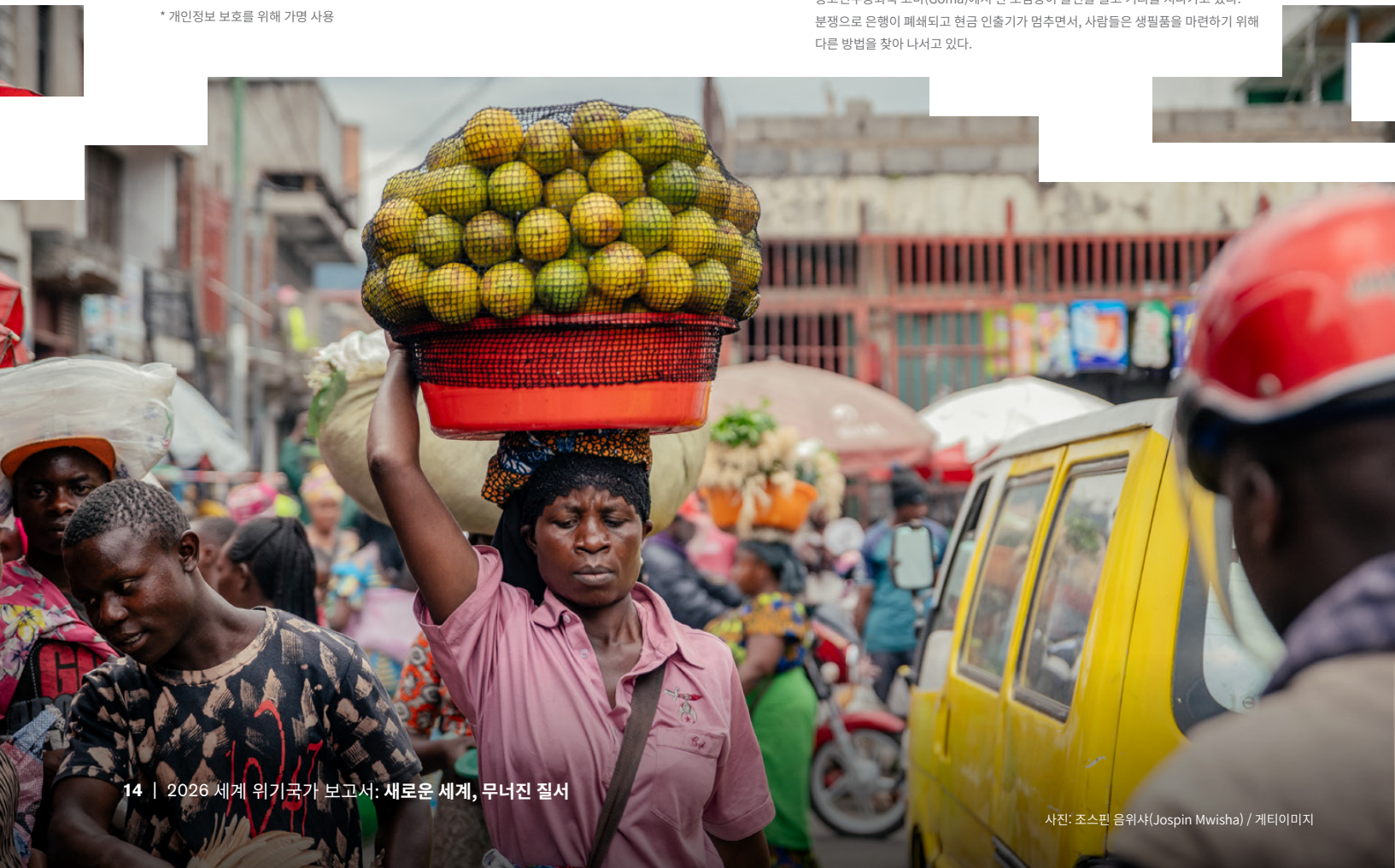
콩고민주공화국 국제구조위원회 파트너 기관 소속 현지 직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 사용

■ 분쟁의 대가는 결국 민간인이 치르게 됩니다. 외부 행위자들이 제공하는 자금과 무기는 폭력을 부추기고, 분쟁을 장기화하며 그 양상을 더욱 파괴적으로 만듭니다. 2025년에는 **18개국**에서 분쟁 사망자가 1,000명을 넘었으며, 이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2025년에 사망자 1,000명 이상을 기록한 분쟁의 거의 **절반**이 아프리카에서 발생했습니다. 수단, 사헬 지역,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이어지는 전쟁은 민간인의 생계를 붕괴시키고 수백만 명을 고향에서 떠나게 만들었으며, 식량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에서는 2024년에 **6,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폭력은 2025년에도 계속 격화되고 있습니다.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민간인이 의존하는 의료, 교육, 물과 위생, 시장과 공급망 등 필수 시스템이 입는 피해는 커지고, 회복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분쟁국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폭력의 영향을 체감하지만, 그 양상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의 현장 경험에 따르면, 분쟁이나 강제이주 상황에서는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실제로 위기국가에서는 여성의 **70%**가 폭력에 직면하는 반면, 비교적 안정된 국가에서는 그 비율이 35%에 그쳐 뚜렷한 대조를 보입니다. 분쟁이 의료 서비스 체계에 가하는 장기적인 타격 역시 여성과 소녀에게 불균형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산모 사망의 **58%**와 신생아 사망의 **37%**가 인도적 위기에 처한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분쟁과 위기가 여성과 어린이의 생명과 건강에 얼마나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콩고민주공화국 고마(Goma)에서 한 노점상이 물건을 들고 거리를 지나가고 있다. 분쟁으로 은행이 폐쇄되고 현금 인출기가 멈추면서, 사람들은 생필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서고 있다.



## ■ 전 세계적으로 재앙적 수준의 기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아는 위기국가에서 더욱 심각하고 치명적이며, 특정 지역과 인구에 집중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3,700만 명**이 통합 식량안보 단계분류(IPC) 4단계(비상, Emergency)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가정이 극심한 식량 부족을 겪고, 영양실조가 확산되며 사망자가 증가합니다.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이 가운데 86%가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에 포함된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의 79%에서 더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람들이 이미 굶주리고 있으며 사망 위험이 임박한 상태를 의미하는 통합 식량안보 단계분류(IPC) 5단계(재앙, Catastrophe)의 식량 불안정은 2025년 기준 **6개국에서 140만 명**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전 세계 차원의 데이터 수집이 시작된 2016년 이후, IPC 5단계가 확인된 국가 수로는 가장 많은 기록입니다.

이처럼 대규모로 확산된 극단적 기아는 인간의 선택과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이며, 그 주된 원인은 분쟁입니다.

2025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중동 가자시티에서 기근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식량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격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했습니다. 창고, 보급 수송대, 농업 시설에 대한 공습을 포함한 이러한 공격은 2020년에는 38건에 불과했지만, 2025년 상반기에만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에 포함된 국가의 수백만 지역사회가 겪는 극심한 식량 불안정은 의료, 경제, 그리고 생계 전반에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식량 불안정은 이미 위기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가정이 하루 한 끼만 먹거나 그보다도 적게 먹고 있으며, 살아남기 위해 나뭇잎이나 가축 사료를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위된 지역사회에는 먹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가정들은 매일 폭력과 굶주림, 두 가지 모두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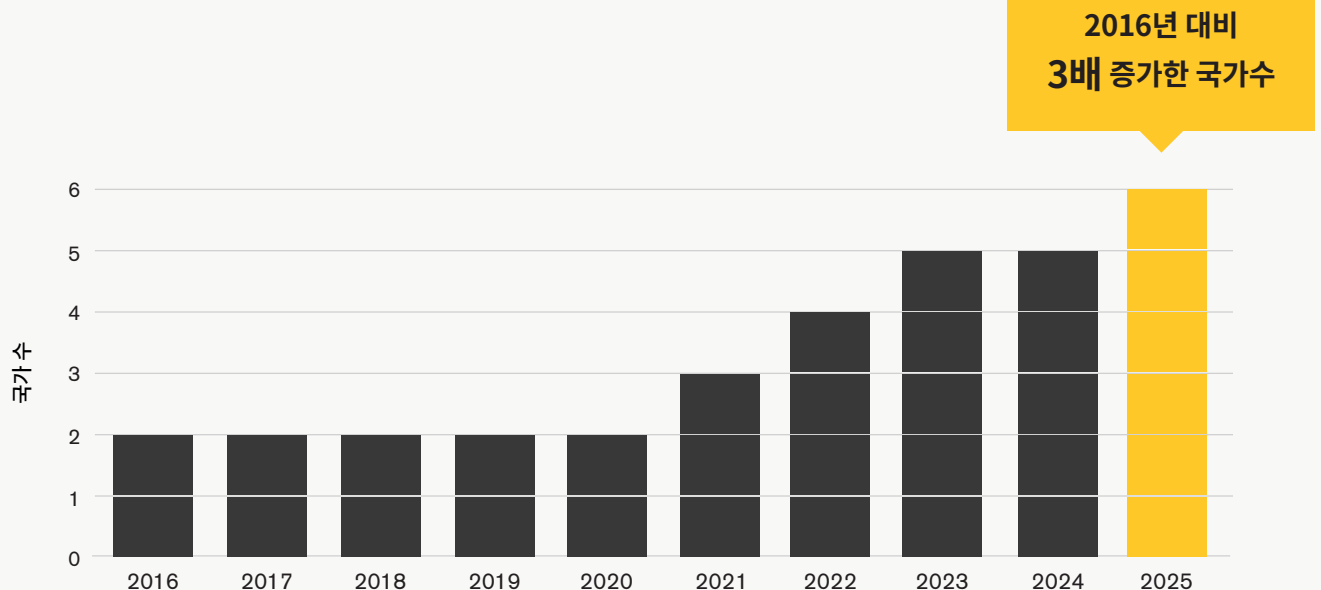
### — 엠티할 가넌

국제구조위원회 수단 긴급 현금 및 생계 지원 코디네이터

그래프 3

## 2025년, 재앙적 수준의 식량 불안정을 겪은 국가 수는 사상 최고치

출처: 글로벌 식량 위기 보고서(Global Report on Food Crises)



■ **사상 최고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강제이주 인구는 2024년에 정점을 기록한 뒤, 2025년에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억 1,730만 명**에 달합니다. 2025년의 소폭 감소는 일부 분쟁의 양상이 변화해 귀환이 가능해진 사례와 일부 수용국이 난민을 강제로 송환하려는 조치를 강화한 결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장기적인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란은 2025년 한 해 동안 **100만 명** 이상을 아프가니스탄으로 추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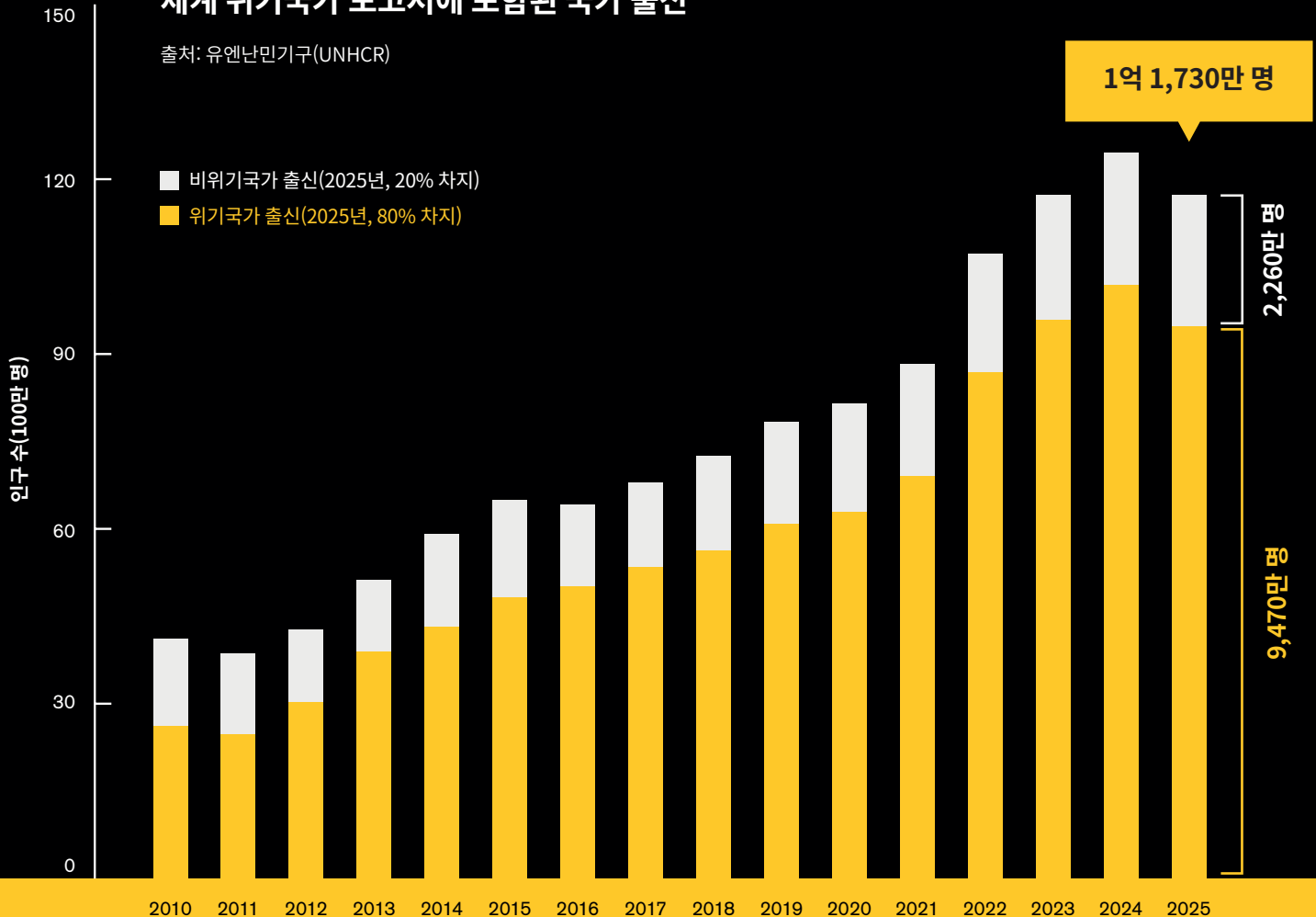
전 세계 강제이주민 5명 중 4명(80%)은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에 포함된 국가에서 분쟁, 폭력 또는 박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떠났습니다.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전 세계 강제이주는 186% 증가했으며, 그 증가분의 대부분은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에 포함된 국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강제이주가 261% 증가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53% 증가에 그쳤습니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전 세계 강제이주민 가운데 유럽이나 미국에 도달하는 비율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강제이주민의 **약 60%**는 국경을 넘지 않고 자국 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이동한 경우에도, 이들 중 **66%**는 출신국과 인접한 국가에 머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전 세계 강제이주민의 **71%**가 저소득 국가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단과 가자지구는 오늘날 위기의 속도와 규모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2023년 4월 수단에서 전쟁이 시작된 이후, **1,180만 명** 이상이 삶의 터전을 떠났으며, 이 가운데 750만 명은 국내 실향민입니다. 가자에서는 인구의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190만 명**이 강제이주를 겪었고, 많은 이들이 여러 차례 이동을 반복했습니다. 이들 대다수는 여성과 어린이입니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채 민간인이 위협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매년 집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프 4

## 전 세계 강제이주민의 대다수는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에 포함된 국가 출신

출처: 유엔난민기구(UNHCR)





■ **기후변화는 새로운 기상이변과 충격을 더욱 빈번하고 강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홍수와 가뭄 같은 자연재해는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은 지난 겨울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지난 **30년간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인구의 **80% 이상**이 농업에 생계를 의존하는 국가에서 식량 안보와 경제적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심각한 가뭄 기간 동안 기후 관련 경제적 손실이 **3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5분의 1에 해당합니다. 기후위기는 또한 위기로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에 장기적인 영향을 남겨, 물과 농업용 토지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말라리아와 콜레라와 같은 질병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 **예방 가능한 질병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질병 예방 성과는 많은 지역에서 정체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23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홍역으로 인한 사망 약 **6,030만 명**이 예방되었고, 홍역은 한때 거의 근절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현재 **57개국**에서 대규모 홍역 유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900만 명**의 영아가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P3) 백신 3회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낮은 수치로, 약 2,000만 명의 어린이가 생명을 구하는 해당 백신의 전체 접종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생후 1세 기준 DTP3 접종률이 가장 낮은 10개국 가운데 **절반**은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에 포함된 국가들로, 수단, 예멘, 레바논, 아프가니스탄, 아이티가 이에 해당합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말라리아 환자 수는 전년 대비 **1,100만 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후퇴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적 영향에 더해 분쟁 확산과 원조 사업 축소로 의료 서비스 접근이 제한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위 사진: 에티오피아 안탈랄레(Antalale)에서 한 남성이 가축의 사체를 살피고 있다.  
이 마을은 수십 년 만의 최악의 가뭄 이후 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 위기지역에 대한 국제 원조의 급격한 축소

무력 분쟁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닫는 가운데, 인도적 위기는 계속 악화되고 있지만 위기의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국제 원조 재원은 역사적인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으며, 인도적 지원의 전달을 가로막는 공격과 제약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새로운 세계 질서가 만들어내는 인도적 대가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심각한 과리를 낳고 있습니다.

■ **국제 원조 재원은 급격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단일 최대 공여국이었던 미국은 새 행정부 출범 이후 원조 지원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2025년 3월까지 미국 국제개발처(USAID) 프로그램의 83%가 취소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산모·어린이 의료, 말라리아와 결핵 대응, 가족계획,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어린이 보호, 전염병 감시 등 핵심 분야의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주요 공여국들도 원조 예산을 축소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소속 주요 17개 회원국의 원조 규모는 2025년에 총 **311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주로 미국과 독일의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삭감은 이미 수년간 점차 축소되어 온 원조 재정 여건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전체 국제 원조의 **25%**만이 극심한 빈곤에 처한 인구의 **50%**가 거주하는 취약국과 분쟁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삭감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공백이 메워지지 않을 경우, 2025년 한 해에만 추가로 **18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거의 70만 명은 5세 미만 어린이입니다. 이러한 삭감이 지속된다면 2030년까지 예방 가능했던 사망이 1,400만 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인도적 대응 계획 역시 심각한 재정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조정된 대응 계획에 필요한 재원의 **4분의 1**만이 확보되었습니다. 미얀마 대응 계획은 17%, 말리 대응 계획은 18%만 충당되는 등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취약국의 필요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바로 그 시점에, 국제 원조는 축소되고 다른 곳으로 전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뚜렷합니다.

■ **인도적 접근은 갈수록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2024년 말부터 2025년 중반 사이, 최소 **36개국**에서 원조 활동이 ‘높음’에서 ‘극심함’에 이르는 접근 제약에 직면했으며, 원조는 간헐적으로만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중 투하와 같이 위험하고 효과가 제한적인 방식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인도적 접근을 무기화하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이제는 전쟁과 통제를 위한 광범위하고 의도적인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르툼의 영양실조 치료센터에서 저는 매주 더욱 쇠약해진 채 찾아오는 어린이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식량 지원 감소로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며, 생명을 지탱해 온 치료식과 의약품은 바닥나며 어머니들은 절박한 심정입니다. 지금은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새로운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 어린이들이 살아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켈리 키사라치

국제구조위원회 수단 의료·영양 선임 코디네이터

세계 위기국가 전반에서 원조는 협상의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당국과 무장 세력은 이동을 제한하고 수송대를 차단하며, 원조 물자를 과세하거나 전용함으로써 권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단에서는 2023년 이후 전투와 당국의 의도적인 방해로 원조 접근이 차단되어 왔습니다. 미얀마에서는 군 당국이 비자 발급 지연, 인터넷 차단, 구호 인력 추방을 통해 원조 활동을 마비시켰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의 여성 구호 인력 활동 금지로 인해 생명을 살리는 의료·영양 프로그램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접근 제약이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난 곳은 가자지구입니다. 수개월 동안 가자지구는 해상 봉쇄와 광범위한 육상·공중 차단에 직면해 원조 접근이 심각하게 제한되었습니다. 제한적인 접근이 허용된 경우에도 전달 체계가 강하게 군사화되면서, 민간인들이 식량을 얻기 위해 위험 지역을 직접 통과해야 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2025년 5월 이후 원조를 받으려다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은 1,800 명을 넘습니다.

국제 인도주의 시스템은 오랫동안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지만, 지난 1년간 위기의 급속한 확산과 국제 원조 삭감은 위기에 처한 지역사회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인도적 필요와 가용한 지원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은 새로운 세계 질서가 낳은 가장 파괴적인 인도적 결과입니다. 그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구조위원회가 전 세계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이 왜 점점 더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지, 그 배경에 놓인 보다 광범위한 지정학적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오늘날의 새로운 세계, 무너진 질서는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됩니다.



### 경쟁의 확대, 위협의 증폭:

야심을 키운 글로벌·지역 강대국들이  
영향력을 둘러싸고 경쟁하면서,  
국제 질서 전반에 새로운 긴장과 위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급변하는 동맹 구조:

오래된 전략적 동맹과 다자 기구가 단기  
파트너십으로 대체되면서, 국제 정치의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이익 중심의 거래:

국제 관계를 이끌던 원칙은 장기적 규범과  
규칙 기반 협력에서 벗어나, 단기적이고  
힘에 기반한 거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은 **파괴적인 악순환**을 만들어내며,  
위기를 증폭시키고 국제 지원을 위축시키는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1

### 국제 협력의 해체

새로운 세계 속 무너진 질서는  
기후변화 대응, 빈곤 완화, 팬데믹  
예방과 같은 공동의 목표를 중심으로  
한 국제 협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2

### 권력과 이익을 위한 분쟁의 정상화

새로운 세계 무질서로 영토 확보, 정치적  
영향력, 경제적 이익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사례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분쟁은 더 길어지고 더 치명적으로  
변하며, 평화를 추구할 유인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3

### 개인의 권리와 보호의 침식

새로운 세계 무질서로 전쟁과 학대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던 기본적 권리와  
안전장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민간인, 인도주의 활동가, 난민을  
겨냥한 공격이 의도적인 전쟁 전략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극단적 기상 현상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2024년에는 니제르에서 홍수가 주택과 생계, 기반시설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혔고,  
핀겔루(Finguelou) 마을도 그 피해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국제구조위원회는 홍수로 피해를 입은 2,000가구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과 임시 거처 자재를 제공하고 있다.

# 새로운 세계, 무너진 질서

## 위기를 부추기는 분열된 국제 질서

급증하는 위기와 축소되는 지원이라는 냉혹한 현실은 단순한 혼란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는 세계 체제가 균열되며 새로운 유인 구조가 형성된 데 따른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규칙 기반 국제 질서는 빠르게 약화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세계 무질서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외교 정책의 영역에서 전후 국제 질서의 붕괴는 종종 추상적인 논의로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위기국가에서는 그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인권과 국제 협력에 대한 전 세계적 약속은 한때 희망이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이 무너질수록, 그 결과는 잃어버린 생명과 축소된 미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질서를 대신해 무엇이 등장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기 신호들은 그 변화가 더 위험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새로운 세계 무질서가 형성되면서, 위기국가를 파괴하는 흐름을 정상화하고 오히려 보상하는 유인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계 무질서는 오늘날 세계를 점점 더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핵심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첫째, 경쟁의 확대와 위협의 증폭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는 지정학적 우위를 둘러싼 경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동시에 야심을 키운 더 많은 지역 강대국들이 각자의 의제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계 권력은 점점 더 넓은 범위의 경쟁 구도로 분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민족주의의 부상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정치 지도자들은 국가 이익을 점점 더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협력은 더 불안정해지고, 경쟁과 대립이 일상이 되는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국제 환경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 **둘째, 급변하는 동맹 구조입니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전략적 동맹과 다자 기구는 광범위한 공동 이익과 가치에 기반해 결속되어 왔지만, 이러한 구조는 점차 단기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시로 재편되는 동맹 관계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역 엘리트, 미국가 행위자들은 무기 확보, 투자 유치, 외교적 보호를 위해 가장 유리한 제공자를 찾아 영향력의 시장을 오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용성과 편의에 따라 형성되는 유동적인 파트너십과 임시 연합은,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던 규범과 제도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 **셋째, 이익 중심의 거래입니다.** 국제 관계를 이끌던 원칙은 장기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협력에서 벗어나, 단기적인 이익과 힘의 우위에 기반한 거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다자적 합의보다 양자 협상을 우선시하며, 즉각적인 이익을 쫓는 선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제 협력은 점점 제로섬 사고에 갇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세계 무질서의 특징들은 국제 질서를 분절되고 유동적이며, 종종 예측 불가능한 체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동성은 새로운 행위자들이 영향력을 확대할 공간을 넓히는 동시에, 위기로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에는 새로운 위험과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중견국들은 분쟁 당사자 간 중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동시에 일부 분쟁을 직접적으로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중국 역시 개발 자원 공백을 메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 대가로 상당한 조건이 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대출 체계에 기반해 개발도상국들은 매년 약 **39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 상환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 무질서의 세 가지 특징은 파괴적인 결과와 위험한 유인 구조를 연쇄적으로 만들어내며, 위기국가를 강타하고 있는 위기의 급증과 국제적 지원의 축소를 직접적으로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 앞부분에서 살펴본 전 세계적 필요와 위기의 누적은 외교관, 공여국, 분쟁 당사자들이 내린 수많은 개별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 하나하나는 경쟁의 확대, 급변하는 동맹 구조, 이해 중심의 거래라는 흐름 속에서 형성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세계 무질서의 지정학적 역학은 국제 협력을 약화시키고, 이익을 위한 분쟁을 일반화하며, 개인의 권리와 보호를 짓밟음으로써 인도적 필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 팀은 전 세계 현장에서 분쟁과 기아, 질병이 우리가 함께 일하는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접 목격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특히 위기국가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전역에서 무장 활동이 늘고 동맹 구도가 빠르게 바뀌면서, 도움이 절실한 지역사회에 다가가는 일이 점점 더 어렵고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분산되고 힘의 균형이 바뀌는 사이, 민간인들은 무장 단체와 서로 경쟁하는 안보 세력 사이에 끼여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팀은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환경에서 매일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 아부카르 모하무드

국제구조위원회 소말리아 부대표



소말리아 딘소르(Dinsor)에서 아지조 알 바레(Azizo Ali Barre, 54세)가 지역 여성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경제적 자립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다.

## 후퇴를 부추기는 유인

### 공동의 목표를 위한 국제 협력 해체

새로운 세계 무질서를 규정하는 세 가지 특징은, 각국이 무엇을 우선하고 무엇을 포기할지 판단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히 공유된 위험 요인이나 세계 공공재와 관련된 사안에서 이런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그 결과 각국은 기존의 약속과 책무에 대한 헌신에서 한발 물러나도록 유도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빈곤 완화, 팬데믹 예방 같은 쟁점에서 협력할 동기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 정치 세력은 원조 지출이나 국제기구, 집단적 행동이 세계 안정에 꼭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치는 국내적 이익이나 단기적 전략 목표에 도움이 될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봐 왔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변화가 더 빠르게 확산되도록 부추겨 왔습니다.

위기가 통제 불능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들도 제 역할을 못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교착 상태가 심해지면서 필요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국가들은 ‘선택적 관여’를 택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국제기구에서는 탈퇴하기도 합니다. 또는 해당 기구의 권한과 임무를 약화시켜 사실상 주변으로 밀어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국가들은 ‘선택과 배제’식 다자주의 방식으로 다자 체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자기구, 특히 유엔과 세계보건기구는 공동의 위협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조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동의 위협은 지역 전체를 집어삼키는 국지적 분쟁일 수도 있고, 전 세계로 확산되는 팬데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구가 실제로 기능하려면 회원국의 정치적 지지와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상임이사국들 사이의 경쟁과 지정학적 대립이 심해지면서 안보리는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일부 세계 최악의 위기에서 집단적 행동을 취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은 거부권을 **49회** 행사했습니다. 이는 그 이전 10년간의 19회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거부권은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시리아, 수단 위기 관련 결의안에서 가장 자주 행사되었습니다.

####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집단적 행동 역시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익 중심의 거래와 급변하는 동맹 구조는 기후변화와 기후위약국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대응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2015년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후 그 이행을 위한 글로벌 협력은 지정학적 경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미국은 협정에서 탈퇴했으며, 파리에서 합의된 감축 목표는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이러한 실패는 기후위기를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마주하게 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분쟁과 기후변화라는 이중 위기의 한가운데에 놓인 지역사회는, 최악의 기후 영향에 적응하고 회복력을 키우는 데 필요한 투자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기후 재정 **1조 9천억 달러** 가운데, **분쟁국이자 기후취약국**의 적응을 위해 사용된 금액은 78억 달러로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면 90%는 중소득 국가에 투자되었습니다.<sup>3</sup> 그 결과, 2025년 **기후적응 재원 지수(Climate Adaptation Finance Index)**에 포함된 모든 위기국가는 ‘극심한 재원 부족’(15개국) 또는 ‘심각한 재원 부족’(3개국) 상태로 평가되었으며, 재원이 가장 부족한 상위 5개국 모두가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에 포함된 국가들입니다.<sup>4</sup> 이는 위기국가의 지역사회가 홍수와 가뭄과 같은 파괴적인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조차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1% 미만

전 세계 기후 재정 1조 9천억 달러 가운데,  
분쟁·기후취약국의 적응을 위해 사용된 비중

■ **원조 공여국이 원조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빈곤 감소와 식량안보 개선, 예방접종 캠페인은 모두 정체 상태에 놓였습니다.** 공적개발원조는 20세기와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중요한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극빈층과 기근을 줄였고, 소아마비와 같은 치명적인 소아 질환이 사라지도록 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진전은 전 세계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 과제들은 점점 더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에 포함된 분쟁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한 세기 동안 이어져 온 진전은 이제 멈춰 서고 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위기국가에서 극빈 상태로 살아가게 될 인구는 약 **97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극빈층을 근절하려는 전 세계적 노력에 중대한 장애물이 됩니다. 그 결과 앞으로 5년 동안 전 세계에서 극빈 상태를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는 **1,350만 명**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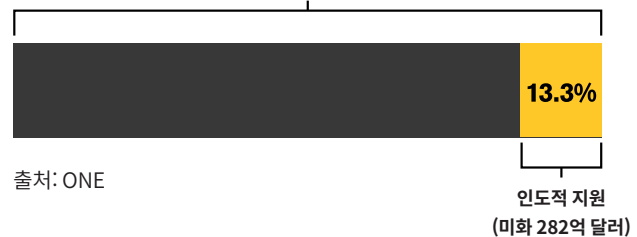
“예멘에 대한 미국의 인도적 지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대폭 삭감되어 수백만 명의 취약계층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식량, 의료, 보호, 깨끗한 물이 절실한 사람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는 이러한 삭감으로 생명을 살리는 서비스가 중단되고,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가 지원과 희망 없이 방치되는 상황을 가장 먼저 목격해 왔습니다.

— 아메드 압둘라티프 박사

국제구조위원회 예멘 영양지원 코디네이터

인류애에 기반한 장기 원조 투자 성과를 낸다는 점은 이미 널리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조 공여국 정부들은 점점 더 이해관계 중심의 관점에서 원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조를 즉각적인 ‘수익’을 내는 경제적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기적 접근은 경제적 압박이 커진 상황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또한 부상하는 민족주의 정치가 ‘국익’을 좁게 정의하는 흐름도 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 보고서 서두에서 설명한 것처럼 원조의 대규모 삭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부 공여국은 빈곤 감소와 경제 개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를 국내 경제, 정치적 이해관계를 강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조국들은 공적개발원조를 자국 내 난민 수용에 드는 국내 비용을 충당하는 데 점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모두 난민 수용 관련 비용은 전체 공적개발원조의 **13%**를 넘었으며, 금액으로는 약 3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비중은 계속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국제 원조 재정  
(미화 2,120억 달러)



주목할 점은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원조가 점점 더 저소득국이 아닌 중소득국의 프로젝트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여국들은 제도가 비교적 안정되고 민간 부문이 성장한 중소득국에서 원조를 집행하는 것이 더 쉽다고 판단해, 이들 국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득국 지원 특성은 공여국이 원조를 통해 투자 수익이나 교역 확대라는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3 총 1조 9,000억 달러라는 수치는 기후정책 이니셔티브가 산정한 것으로, 국가 간 기후금융 자금 흐름뿐 아니라 각국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흐름까지 포함합니다. 78억 달러라는 수치는 국제구조위원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 데이터를 활용해, 선진국이 분쟁의 영향을 받는 기후취약국에 제공한 적응 재원을 분석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4 아프가니스탄, 차드, 남수단, 소말리아, 니제르. 기후 적응 재정 지수는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을 모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진: 조스팽 음위샤(Jospin Mwisha)/게티이미지

## 이익을 추구하는 유인

### 당연시되는 권력과 이익을 위한 분쟁

새로운 세계 무질서는 분쟁을 둘러싼 계산법도 바꾸고 있습니다. 경쟁이 심화될수록 전쟁은 정책과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더 매력적인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 중심의 거래가 확산되고 동맹이 분열되면서, 공유 규범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영토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일이 점점 더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새로운 환경은 전쟁의 '투자수익률'을 높여줍니다. 동맹이 수시로 바뀌면서 침략국은 분쟁 비용을 낮춰줄 지원국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무기와 지원 예산, 외교적 보호를 확보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동시에 전쟁의 전리품을 사줄 수요처도 더 많이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분쟁 경제는 단순한 전쟁의 부산물이 아니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전문화된 글로벌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분쟁 경제에서는 국가와 비국가 세력이 자원과 교역로를 장악합니다. 이들은 지역 주민에게 비공식적으로 세금을 거두며, 그 돈으로 전쟁 자금을 마련하고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습니다. 새로운 세계 무질서에서는 막대한 부와 영향력이 지속적인 불안정 상태에서 나옵니다.

- 분쟁은 영토 이익과 정치적 권력, 그리고 이익을 위한 '정당한 도구'로 점점 더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폭력은 오래전부터 정치적 전략이자 수익의 원천이었습니다. 다만 현재 전 세계에서 분쟁이 전례 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더 많은 활동 주체가 분쟁을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설령 활동 주체가 기존 동맹으로부터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압박을 받더라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이해관계 중심의 외교, 안보와 급변하는 동맹 구조가 지배하는

환경에서는, 생각이 다른 국가나 비국가 활동 주체와도 새 동맹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단, 콩고민주공화국, 미얀마 등 여러 위기국가의 분쟁 당사자들은 평화 노력에 협력할 유인이 크지 않습니다.

- 분쟁은 이제 고도화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산업이 되었습니다. 수단에서는 수단군(SAF)과 신속지원군(RSF)이 금광, 밀수 경로, 기타 수익과 영향력을 창출하는 경제 자원을 장악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M23과 연계 무장단체들이 광물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며, 그 규모는 한 달에 약 80만 달러에 달합니다. 사헬 전역에서는 무장 단체와 지역 민병대가 비공식적으로 세금을 거두고 국경을 넘어 물자를 이동시키며, 폭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 경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경 간 네트워크는 분쟁, 교역, 강제이주가 점점 더 서로 얽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불안정은 국경을 넘어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외부 세력은 영향력과 자금을 늘리려고 타국 내전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에게 무기를 팔거나, 그들로부터 자원을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이런 개입은 네트워크를 더 키웁니다. 자국 국경 밖 전쟁에 관여하는 국가 수는 기록적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새로운 세계 무질서 속에서 전쟁의 수익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역사회는 더 불안정해지고 전쟁은 더 오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도적 지원에 쓰일 자원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6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 서두에서 설명한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방대한 경제 네트워크와 천연자원 착취를 통해 작전 자금을 조달하는 무장 세력들에 의해 미얀마 전역에서 분쟁과 강제이주가 촉발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불안정이 심화되며, 이는 경제, 사회보호 체계, 그리고 핵심 기반시설을 위태롭게 만들었으며, 전국적으로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 — 안테네 게메추

국제구조위원회 미얀마 선임 모니터링·평가·책임성·학습(MEAL) 코디네이터

위 사진: 콩고민주공화국 루바야(Rubaya)의 콜탄 채굴 현장에서 일하는 남성들. 이 도시는 광물 자원 때문에 무장 분쟁에 얽혀 있다.



## 처벌 부재를 부추기는 유인 개인의 권리와 보호 체계의 억압

- **권력 투쟁은 지역사회를 착취의 악순환에 가두고 있습니다.** 무질서가 분쟁 경제의 성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분쟁국 전역에서 무장 단체와 소수의 권력층 정치인들이 경제적 통제력을 넓힐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안정한 사회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의지하는 시스템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소말리아에서는 알샤바브 조직이 교역로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열된 정부 권한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분열된 글로벌 질서 속에서 자원 쟁탈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인도적 지원의 필요는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능력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 우리 가족을 위해 쓸 물을 길어오는 일은 저 같은 여자아이들이 해야 해요. 구호 단체들이 급수 시설을 지어 주었지만, 물은 이른 아침과 늦은 밤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 지역에서 교전이 발생하면서 생활은 정말 어려워졌어요. 경제는 무너졌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지만, 우리는 남았어요. 여기에는 무장 단체들이 있고, 그 때문에 모든 것이 위험해요.

— 콩고민주공화국 이투리(Ituri) 지역 출신 16세 고객

위기지역에서 분쟁 경제는 일상적 피해로 나타납니다. 원조는 부족해지고 물가는 오르며 사회 안전망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 현장팀은 광산 지역에서 여성과 소녀들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고 보고합니다. 이들은 일자리나 필수품을 구하는 과정에서 성착취와 학대를 겪을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보호가 부족하고 선택할 수 있는 생계 수단이 제한되어 있어, 추가 피해에 더 취약해집니다. 무장 단체가 동부 콩고민주공화국과 사헬 전역에서 자원을 통제하려 하면서, 일상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젊은 남성들은 광산 노동이나 무장 세력으로 더 많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착취가 예외적 사건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착취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역사회는 빈곤, 폭력, 방치의 악순환에 묶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 무질서는 과거에는 전쟁과 학대로부터 민간인을 지켜주던 기본적 권리와 보호 장치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협력은 줄고 동맹은 분절되고 있습니다. 외교도 갈수록 이해관계 중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해 온 규범과 국제법을 지탱하던 공유 가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중 정렬(여러 나라와 실용적으로 손잡는 상황)이 확산되면서 잔혹 행위의 가해자는 새로운 파트너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책임을 묻는 절차와 장치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은 호구를 위한 것”이라는 식의 ‘**처벌 부재의 시대**’ 사고를 부추기는 구조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인, 인도주의 활동가, 난민에 대한 공격은 더 이상 숨겨야 할 위반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도적이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전쟁 전략으로 점점 더 활용되고 있습니다.

- **인도주의 활동가도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 무질서 속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이해관계 중심의 정치가 확산되면서, 인도적 활동 주체가 과거에 받던 존중과 보호는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동맹이 재편되고 국가나 무장 단체가 복지보다 권력과 이익을 우선하면서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인도주의 활동가를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상으로만 보고 의심하는 분위기가 커졌습니다. 2025년 9월까지 인도주의 활동가 **617명**이 살해, 납치, 구금,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가운데 96%는 위기국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2025년이 기록상 인도주의 활동가에게 가장 치명적인 해였음을 의미합니다. 역대 최악의 해가 될 가능성도 시사합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점 기준으로, 올해에만 이미 3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중 198명은 가자지구, 36명은 수단, 15명은 남수단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원조를 전달하는 일 자체가 위험한 행위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의료 서비스도 같은 맥락에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던 **약 1,00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2024년 같은 기간보다 약 60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2023년 10월 전쟁이 발발한 이후, 세계보건기구는 가자지구에서 최소 **1,580명**의 의료 종사자가 사망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인시큐리티 인사이트(Insecurity Insight)**는 2023년 4월 수단 내전 발발 이후 수단에서 의료 종사자 158명이 사망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의료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괴한 공격이 150건 이상 발생했다고 기록했습니다.

- **민간인이 직접 공격받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2024년 전 세계에서 분쟁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 수는 **40%** 급증했습니다. 사망자는 거의 5만 명에 육박했으며, 대부분이 민간인이었습니다. 가자지구에서는 2025년 3월부터 9월 사이 이스라엘 군사 작전으로 팔레스타인인 **16명**이 사망했습니다. 그중 **15명은 민간인**이었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폭발성 무기 공격 건수는 **2019년 이후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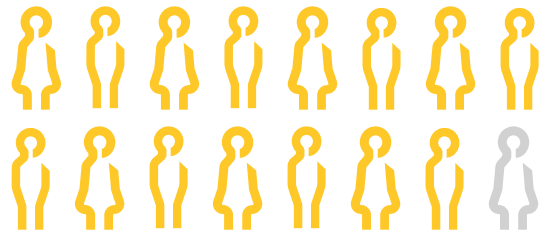
수단,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에서 대규모 사상과 파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시 폭격, 드론 전, 포위 전술도 더 흔해졌습니다. 그 결과 민간인의 삶은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조차 쓰지 말아야 할 수단까지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 젠더기반 폭력도 분쟁 지역 전역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존자에 대한 감독과 지원 제공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유엔은 2024년에 분쟁과 관련된 성폭력 사건 **4,600건**만 확인했습니다. 통계에 담기지 않은 실제 수치는 더 높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2년 사이 **87%**나 증가했습니다. 생존자의 **90%** 이상은 여성과 소녀입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소말리아, 남수단에서는 성폭력이 전쟁의 수단으로 체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책임자 처벌이 없이 넘어가는 일이 당연시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동시에 여성과 소녀는 가정 내에서도 높은 수준의 폭력을 겪고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해 사법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원도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분쟁이 남긴 트라우마와 사회적 불공을 더 심화시킵니다.

#### ■ 어린이는 더 이상 무질서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쟁으로부터 어린이를 지키던 규범과 보호 장치도 훼손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분쟁 지역에서 학교에 대한 공격이 44%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결과 수천 명의 학령기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납치되었습니다. 공격은 가자지구, 콩고민주공화국,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아이티에서 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가자지구는 전 세계에서 어린이에게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입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3월 사이 **5만 명이 넘는** 어린이가 살해되거나 부상을 입었다고 추정합니다. 생존한 어린이들도 정신 건강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기금은 수 년간의 전쟁 이후 생존한 **어린이 전체(100%)**가 정신 건강과 심리



2025년 3월부터 9월 사이  
이스라엘 군사 작전으로 사망한 팔레스타인 사람의

### 16명 중 15명은 민간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세계 무질서의 환경에서는 어린이 보호 메커니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자 협약을 지키거나 평화유지 임무에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분쟁 환경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잔혹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 이동 중인 사람들(난민, 망명 신청자, 강제 이주민 등)은 안전한

곳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장벽에 부딪힙니다. 각국 정부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국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 통제를 다른 국가에 맡기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난민과 망명 신청자를 보호하라는 국제법과 법제화된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원조와 외교가 이주 단속과 점점 더 결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난민과 망명 신청자는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놓이거나 강제 송환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주민과 망명 신청자를 자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로도 추방하려는 움직임이 보여 왔습니다. 특히 그들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국가라면 어디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여러 수단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현금이나 보조금 같은 경제적 유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비판, 여행 금지, 기타 제재 조치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가자지구에서는 수개월간 이어진 분쟁 속에서 국제 규범의 붕괴가 매일같이 체감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피난처를 찾던 병원과 학교, 임시 보호시설까지 공격 대상이 되었고, 지금은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집을 떠난 채, 돌아갈 곳이 있는지도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성과 소녀들은 폭력과 착취에 가장 큰 위험에 놓여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묻지 못하고 있습니다.

#### — 야히야 만수르

국제구조위원회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선임 공급망 담당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Mykolaiv)의 예호르와 이반이 놀던 동네 놀이터는 미사일로 파괴됐습니다. 학교를 비롯한 마을 대부분이 폭격으로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이 모여 놀 곳이 없고, 들끓는 지리 때문에 위험합니다.



# 앞으로 나아갈 길

## 무질서한 세계를 위한 10가지 권고사항

새로운 세계, 무너진 질서는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에 설명한 지역사회에 현실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적 지원 수요, 분쟁, 식량 불안 등 모든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자 '작동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문제는 해법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해법을 실제로 실행하고, 위기국가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권고안은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이 권고안은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인도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온 경험과, 위기국가 사람들이 실제 필요를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효과적인 행동에 대한 지지를 모으는 일은, 위기에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한 모든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 이익에서 보호로

### 분쟁 해결을 위한 평화 중재자의 역량 강화

분쟁의 수가 기록적으로 늘어나면서, 올해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에서 설명한 인도적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새로운 세계, 무너진 질서의 지정학적 흐름과 수익성 높은 전쟁 경제에 의해 부추겨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통적인 외교 해법만으로는 분쟁을 해결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 경제를 해체하고, 분쟁을 부추기는 세력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외교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중 정렬의 세계에 맞게 적응하고, 분쟁 경제를 해체하며,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포용적인 평화 연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 권고 1

### 분쟁 경제를 해체해야 합니다.

수익성 높은 전쟁 경제가 만든 분쟁을 해결하려면, 평화 노력은 정치 협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폭력을 통해 돈을 버는 불법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해체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쟁보다 평화가 더 이익이 되는 구조로 바뀔 수 있습니다.

▶ **분쟁의 경제적 동인을 다뤄야 합니다.** 정부와 유엔은 평화 중재 과정에서 분쟁의 경제적 요인을 직접 다뤄야 합니다. 모든 외교적 노력에는 누가 폭력으로 이익을 얻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 내부만 보지 말고, 전쟁 경제가 작동하는 국경 간 지역적, 초국가적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표적 제재와 자금세탁 방지 수단, 외교 채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해 복잡한 불법 네트워크를 교란할 수 있습니다.

▶ **재정 압박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유럽연합(EU)의 고위험 국가 지정 제도, 그리고 유럽평의회 MONEYVAL 전문가 위원회와 같은 글로벌·지역 기구의 조치는 분쟁 광물 등 불법 자금 흐름을 용인하는 국가에 실질적인 금융·평판상의 비용을 부과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자에 대해 ‘회색 리스트’와 ‘블랙 리스트’를 적용하면 신용등급 하락과 글로벌 금융 접근 제한으로 이어져, 국가 차원의 정책 개혁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는 2022년 불법 금 거래와 자금세탁 문제로 FATF 회색 리스트에 등재되었고, 이에 따라 일부 비규격 금 정련소를 폐쇄하고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EU는 2023년 불법 금 거래에 대응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범위가 제한적이었으며, 수단 전쟁과 연계된 기업 네트워크에서 UAE의 지속적인 역할이 확인되면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감독하는 기구에 권한을 부여해, 금융기관이 부동산과 무역지대 등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분야까지 포함하도록 국가별 평가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 권고 2

### 외교와 평화 중재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권력이 분산되는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평화 중재는 경직된 국가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넓고 창의적인 평화 연합을 구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 **평화를 위한 ‘콘소시엄’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다국화된 세계에서 평화를 지지하는 국가들은 더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중국처럼 분쟁에 점점 더 깊이 관여하고 있는 신흥 영향국들과도, 평화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들 국가는 때로는 분쟁을 악화시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각국이 제각기 움직이기보다, ‘평화를 위해 함께 행동하는 국가들의 콘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의 틀 안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이 콘소시엄은 분쟁 완화 과정에서 민간인 보호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분쟁 당사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외교 채널만 선택해 접촉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국가 간 조율과 공조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여성의 평화협상 참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G7 국가와 주요 주체들은 여성 평화 안보(WPS) 국가실천계획을 제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평화 과정에서 여성이 완전하고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여성 평화 안보 의제는 분쟁이 여성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또한 여성이 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참여가 있을 때 평화는 더 오래 지속됩니다. 그리고 결과의 영향력도 더 큼니다. 유엔 차원에서 회원국은 이 의제를 확고히 지지해야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시민사회와 협력해 국가실천계획을 공표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을 약속해야 합니다.

▶ **유엔을 다시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유엔은 회원국과 지도부가 얼마나 지지하느냐에 따라 힘이 달라집니다. 유엔의 역할을 가볍게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는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인 국가와 사람들을 보호할 장치를 약화시킨다. 회원국들은 유엔이 공동의 위협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개혁을 지지해야 합니다. 국제구조위원회는 대규모 잔혹 범죄가 발생할 때 안보리 거부권을 유예하자는 제안을 다시 지지한다고 밝혔다. 프랑스가 이를 제안했고, 120개국 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가자지구, 수단, 우크라이나의 민간인을 위해 안보리는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유엔 지도부에는 충분한 권한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무총장은 재선 문제로 초반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사무총장 임기는 7년 단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보리는 차기 사무총장 선출을 위해 총회에 후보 1명만 올려서는 안 됩니다. 여성과 위기 현장 경험이 있는 인물을 포함해 후보 2명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흐라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이자 언론인, 그리고 부모이다. 자흐라와 두 자녀는 2021년 8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후 아프가니스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자흐라는 영국에 정착해 국제구조위원회가 제공한 리더십 교육에 참여했으며, 현재는 유엔을 포함한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경험을 전하며 전 세계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고 있다.

# 위험에서 존엄으로

##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보호

새로운 세계 무질서는 가치에 기반한 협력과 국제 규칙을 가볍게 여기면서 ‘**차별 부재의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개인의 권리와 보호는 큰 불이익 없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국제 규범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더 많은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더 정교하고 파괴적인 무기도 손에 넣고 있습니다. 민간인은 전투의 한가운데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전쟁범죄와 원조 접근 제한, 이주민에 대한 권리 침해와 학대는 모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학대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원조를 받을 권리와 안전을 추구할 권리를 지키는 법과 규범에 다시 헌신해야 합니다.

### 권고 3

#### 국제인도법(IHL)에 대한 존중을 회복해야 합니다.

국제인도법을 ‘선택과 배제(알라카르트)’식으로 준수하는 관행이 당연시되는 흐름을 되돌리려면, 국가는 말 뿐인 약속을 넘어 실제 준수와 책임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전쟁법을 위반하는 이들에게 상응하는 불이익을 부과해야 합니다.

▶ **전쟁 범죄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국가들은 국제인도법 준수를 다시 약속하고, 위반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책임에는 위반이 발생했을 때뿐 아니라 위반할 중대한 위험이 있을 때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국가는 국내 정책의 큰 틀을 활용해 안보 지원과 무기 판매를 제한, 보류하거나, 조건부로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국가는 유엔 조사위원회 등 책임 규명 메커니즘과 사실조사단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충분한 재원을 제공해 위반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등에서 사실조사단의 성과를 활용하고, 그 업무를 확대할 기회를 적극 찾아야 합니다. 회원국들은 국내 차원의 국제인도법 준수에 대한 ‘**자발적 보고**’(인도적 지원 접근 관련 약속 포함)를 더 널리 활용하고, 나아가 이를 안보 파트너십의 조건으로 삼아야 합니다. 국가 정상들은 국제적십자위원회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2026년 ‘**전쟁 속 인도주의 수호**’를 위한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 사항을 어떻게 이행할지 공개적으로 밝히고,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 권고 4

#### 인도적 지원에 안전한 접근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가는 인도주의 활동가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원조가 협상 카드로 쓰이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장 활동가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고, 정치, 군사 협상과는 분리된 인도적 외교를 통해, 원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원조 접근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 **최전선의 현장 활동가를 지원해야 합니다.** 현장 인도주의 활동가가 원조 접근을 협상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투자는, 원조 중단을 막는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 대비 효과가 큰 방법입니다. 국제구조위원회의 경험에 따르면, 현장팀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면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도 접근이 확대되고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스티칭 플뤼흐텔링(Stichting Vluchteling)**과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은 이미 비정부기구의 접근 역량에 투자해 왔습니다. 이제 다른 원조도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일선 현장 기관이 접근 역량을 제고화할 수 있도록 돕고, 현지 수용성과 원조 활동가의 안전을 함께 보장해야 합니다. 현장 역량이 강화되면 원조 전달 지연이 줄고, 그에 따른 운영비도 감소합니다. 원조 접근에 대한 1달러 투자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원조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원조와 정치를 분리해야 합니다.** 정부는 인도적 지원 접근이 정치, 군사 협상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방어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원조가 협상 카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조 접근은 독립된 최우선 과제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제구조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원조 접근을 위한 인도적 외교는 두 조건에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첫째, 외교관이 인도주의 활동가와 정기적이고 개방적으로 소통할 때입니다. 둘째, 원조 접근을 독립된 우선 과제로 두고 그 성과가 정치, 군사 합의에 종속되지 않도록 할 때입니다.

▶ **인도적 외교에 투자해야 합니다.** 원조 전달을 의도적으로 막거나 조작하는 문제를 외교로 해결하려면, 어떤 전략이 동원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그 전략이 현장의 인도주의 활동가와 민간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각 국가는 관련 부처와 재외공관에 인도주의 업무 전담관을 두어야 합니다. 외교관은 훈련을 받고 분쟁의 모든 당사자와 교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조국은 **유럽 민간 보호 및 인도적 지원 총국(ECHO)**처럼, 원조 접근 담당관을 지원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비정부기구의 참여를 더 넓혀야 합니다. 원조 접근 실무그룹, 민간 조정 기능 등 메커니즘에서 정기적 대화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고위 의사결정권자, 무장 단체, 지방 당국, 현장 요원 간 소통이 끊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험상 비정부기구와 현장 활동가가 포럼에 참여할 때 공동 해법이 만들어졌고, 지원도 더 안정적으로 이어졌습니다.

### 권고 5

#### 분쟁에서 가장 큰 위험에 처한 사람을 먼저 보호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분쟁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정부는 분쟁국에서 서로 다른 집단이 직면한 구체적 위험을 인식하고,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은 더 큰 위험에 놓이기 쉽습니다.

▶ **여성과 소녀를 우선 지원해야 합니다.** 원조국은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에 대응하는 현장 여성 주도 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이런 기관과 협력하면 사업의 질이 높아지고 원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동시에 현지에서의 수용성이 커지고, 지속 가능하며 위기 대응력이 높은 시스템도 강화됩니다. 네덜란드의 '남반구 주도', 프랑스의 페미니스트 조직 지원기금(FSOF) 같은 혁신적 재원은 지역 시민사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사례입니다. 프랑스 기금의 지원을 바탕으로 국제구조위원회가 주도하는 컨소시엄 IGNITE는 86개 여성 주도 조직의 역량 강화를 돕고, 소녀들의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전쟁 경제의 착취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분쟁국에서 전쟁 경제는 고용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민간인을 위험한 환경으로 몰아넣습니다. 원조국은 전쟁 경제가 삶에 미치는 피해를 더 정확히 조사, 평가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젠더 기반 폭력 증가, 기후충격과의 연계 같은 요소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평가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가 창업 자금, 기술 훈련, 시장 기반 지원을 통해 안전한 대체 생계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여성이 겪는 특정한 보호(안전) 위험과 여성이 수행하는 경제적 역할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 권고 6

### 난민과 강제이주민의 권리를 옹호해야 합니다.

1951년 난민협약은 지난 75년 동안 난민과 강제이주민을 위한 필수 보호 장치를 제도화하고 생명을 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계 무질서의 특징 중 하나는 이 원칙들에 대한 공격입니다. 각국 정부는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에 다시 전념해야 합니다.

▶ **국제 난민 보호에 다시 헌신해야 합니다.** 난민협약이 정한 기본적 원칙, 즉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로 난민을 강제 소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갑론을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수호되어야 합니다. 각국은 국제난민법을 준수하고 옹호함으로써, 특히 망명을 보장하는 권리를 통해 망명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망명권을 인정하는 절차는 공정하고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선언(Los Angeles Declaration)이 지적하듯, 미국 정부가 난민 보호 약속과 역내 협력에서 발을 빼기로 한 결정은 해당 지역의 난민 보호와 이주 관리 모두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이런 결정을 정치적, 상업적 전략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유럽연합의 이민, 망명 협정 같은 지역 제도는 난민 수용에 대한 책임 분담을 강화하고, 망명, 환송 심사 절차를 개선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국은 질서 있고 인도적인 체계를 구축해 협약의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난민 보호의 기본 질서를 크게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파키스탄 카이르푸르(Khairpur)에 위치한 국제구조위원회 운영 여성·소녀 안전 공간에서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 동안 여성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이웃들과 교류하고 있다.



▶ **안전하고 합법적인 제도적 통로를 확대해야 합니다.** 처벌 중심의 조치와 법 집행은 이주를 줄이는 데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밀입국 조직만만 키울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재정착, 인도적 입국, 가족 재결합 같은 안전한 제도적 경로가 있으면 위험한 이동이 줄고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책임 분담을 촉진하고 이주를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정착 수용 약속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많은 수용국이 나서 이 감소 추세를 되돌려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연합 재정착 프레임워크**’는 재정착 목표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 재정착 프로그램의 중단, 독일 연방의 인도적 입국 경로 축소, 영국의 가족 재결합 경로 제한처럼 안전한 제도적 통로를 줄이거나 막는 조치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 **원조는 국가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주 관리는 공정하고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인도적 원조 시스템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보고서의 권고를 따르면 그 역할을 훨씬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원조는 해당 국가 정부가 이주 관리에 협조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주는 원조와 분리해 공정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인 별도의 체계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정성이란,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제시하고, 그 신청이 제대로 심사될 기회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체류(망명)가 허가된 사람의 안정과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빠른 망명 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체류가 허가되지 않은 사람은 질서 있고 존엄한 방식으로 송환되어야 합니다. 망명 심사 처리 책임을 르완다로 이전하려 했던 영국-르완다 협정과 유사한 협정들은 수백만 달러의 비용만 초래했을 뿐,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효과를 내려면 국제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지역의 아디 후츠라(Adi Hutsa) 마을에서, 국제구조위원회 의료진 티르하스 아마레(Tirhas Amare)가 예방접종 현장에서 두 살배기 하엘롬 테울데(Hayelom Tewolde)에게 백신을 투여하고 있다.

# 후퇴에서 다시 헌신으로

## 원조의 미래를 다시 정의하다

전환이 필요합니다. 위기는 더 악화되고 있는데, 지원 체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극명한 격차는 원조의 우선순위와 방식 모두를 바꿔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원조 제공자는 위기가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 대응하며, 줄줄이든 예산을 넓게 나눠 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신 명확한 우선순위를 세우고, 현지 대응자의 역량을 강화하며,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성과가 후퇴하지 않도록 효과가 검증된 투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조 전환은 검증되고 효과가 높은 해법에 예산을 집중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한정된 재원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 역량처럼 결정적으로 중요한 공백을 메우고, 강한 현지 파트너십을 촉진합니다. 원조 시스템의 접근 방식을 바꾸면, 우리는 악화되는 위기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다시 헌신할 수 있습니다.

### 권고 7

####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극대화하도록 원조 재정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원조 지원이 축소되면서 공동 목표를 위한 협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조 시스템은 현실에 맞게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이는 제한된 재정을 넓게 흠뿌리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신 자원 기반을 다변화하고, 가장 큰 필요가 있는 곳을 표적화한 원조에 집중하는 더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가장 필요한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공적개발원조(ODA)의 배분 목표를 세우는 것은, 축소된 전 세계 원조 예산에서 무엇을 먼저 지원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국제구조위원회는 빈곤 수준, 자가 자원 조달 능력, 수용 역량을 고려할 때, 가장 취약하고 분쟁의 영향을 받는 국가가 ODA의 최소 60%, 위기국가가 최소 30%를 받아야 한다고 추산합니다. 이는 2023년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이들 국가에게 실제 배분된 예산의 2배 수준입니다.<sup>5</sup>

▶ **자원 기반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증가하는 원조 수요에 대응하려면 원조의 규모를 키워야 하며, 이를 위해 추가 자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G7은 세계 GDP의 약 28%를 차지하지만, 전 세계 대외 원조의 약 75%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위기국 중 하나인

수단의 여전히 최대 원조국입니다. 반면 브릭스(BRICS) 국가들은 세계 GDP의 약 27%를 차지함에도 원조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훨씬 낮습니다. 한편 걸프 지역을 포함한 고소득 국가들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들의 지원은 계속 확대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 원조국들은 자원 다변화를 핵심 우선순위로 삼아 온 유럽연합 시민 보호 및 인도적 지원 운영총국(ECHO)의 사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새로운 자원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도적 부채** 스왑은 기본 서비스를 지원할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입니다. 이는 국가 부채의 일부를 매입한 뒤, 개발금융기관이나 민간 보험사의 정치적 위험 보장을 통해 부채를 재조정하고, 공공재를 구매할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또한 지표연동형 보험과 같은 모델은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사전 확정 재원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 **원조 개혁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랜드 바겐(글로벌 공여 개혁 약속)**을 포함한 원조 개혁은, 질 높은 재원을 통해 원조의 효과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제공되고, 용도와 배분을 현장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인도적 지원이 더 나은 성과를 낸다는 증거도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랜드 바겐 보고에 따르면 유연한 재원의 확대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2023-2024년 동안 유연 재원의 비중은 사실상 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용도가 엄격히 지정된 재원은 2023년 53.5%에서 2024년 56%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재원이 부족하고 예산이 줄어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질 높고 다년이며 유연한 재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 권고 8

#### 검증되고 높은 효과의 해결책에 투자해야 합니다.

위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단 1달러의 원조라도 최대한 큰 효과를 내기 위해, 원조 시스템은 예산을 넓게 분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신 현금지원이나 예방의료처럼 효과와 비용 효율이 입증된 방식을 확대해야 합니다.

▶ **현금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와 공여기관은 현금 및 바우처 지원(CVA)의 활용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현금 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스스로 선택해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존엄성을 지키는 동시에 검증되고 비용 효과적인 방식이며, 동시에 지역 시장을 활성화합니다. 또한 식량 안보를 개선하고, 수해 가정이 생계를 유지하며 자산을 팔거나 빚을 지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에서 현금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에 23.9%로 감소했으며**,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하락세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원조 기관이 현금 우선(cash-first) 접근법을 채택하고,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해야 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HO), 스위스,

5 OECD의 '2025년 취약국가 보고서'에 포함된 61개 취약·분쟁 영향국을 기준으로 하였다. 국제구조위원회는 원조 배분을 위해 다양한 전문 모델을 적용했으며, 국가의 절대 빈곤 규모와 국민총비율, 분쟁 및 강제이주로 인한 취약성 지수, 취약성과 분쟁 영향국이 원조를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역량 등을 고려했다. 이 계산은 가장 보수적인 원조 배분 모델을 적용한 결과로, 2024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총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2,121억 달러를 기준으로 했다. 이러한 산출 결과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취약·분쟁 영향국(FCAS)에 60%, 세계 위기국가(Watchlist)에 30%를 배분하는 목표치를 도출했다.

영국은 현금 지원을 인도적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삼겠다는 공동 공여국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현지 당국이 현금 지원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인도적 외교 채널을 활용해 그 필요성과 효과를 설득해야 합니다.

▶ **어린이의 의료 위험을 예방해야 합니다.** 원조 제공자는 정기 예방접종과 같은 예방 조치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는 사후 긴급 대응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듭니다.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연간 약 **6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반면 예방접종은 2000~2023년 사이 약 **6,030만 명**의 홍역 사망을 예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역사회와 1차 의료 종사자는 조기 예방과 탐지에서 핵심 역할을 하며, **1달러의 투자가 약 10달러의 효과**를 냅니다. 그럼에도 현재 **57개국**에서 홍역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장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방식을 조정하면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2022년 이후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의 지원을 받는 국제구조위원회 주도의 리치(REACH) 컨소시엄은 2,000만 회 이상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거의 **200만 명**의 어린이가 완전한 예방접종 단계에 들어섰으며, 이 중 75만 명은 한 번도 접종을 받지 못했던 어린이입니다. 2025년 9월 기준 목표로 한 **171개** 지역사회 모두에서 접종이 가능 해졌습니다. 이는 시작 시점보다 16% 늘어난 수치입니다. 매월 100만 회 이상 접종이 이뤄지고 있으며, 접종 규모가 커지면서 1회 접종당 평균 비용은 약 2.30달러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접종 확대의 대표적 성공 사례입니다.

▶ **영양실조 어린이를 치료해야 합니다.** 극심한 기아와 영양실조는 위기에 처한 어린이의 주요 **사망** 원인입니다. 이들은 생존하더라도



영양실조는 어린이의 성장, 건강, 학습 능력에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어린이 영양실조 치료는 향후 발달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원조 삭감 이전에도 전 세계 급성 영양실조 어린이 4,500만 명 가운데 치료를 받은 비율은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나 진단과 치료 절차를 체계적으로 간소화하면, 같은 예산으로도 더 많은 어린이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보호자와 지역사회 의료 종사자가 직접 치료에 참여할 수 있게 해, 결과적으로 수천 명의 어린이에게 추가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국제구조위원회는 이 간소화된 치료 프로토콜을 여러 여러 국가에서 연구를 통해 검증했습니다. 모든 연구에서 회복률은 85~95%, 비용은 21% 절감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급성 영양실조 치료는 기존의 지역사회 기반 일반 영양실조 치료(CMAM)보다 최소 30% 더 비용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권고 9

###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전환해야 합니다.

악화되는 위기에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면, 원조 시스템은 상명하달식·위험 회피식 모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성 주도 조직을 포함한 현지 및 일선 현장 활동가들과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통해, 그들에게 권한과 역량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원조 전달 파트너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세계은행 같은 다자개발은행은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조직에 대한 지원 예산도 확대해야 합니다. 시민사회 조직은 분쟁 지역이나 정부 통제 밖 지역에서 원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 국가에서 정부 파트너십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위험이 커집니다. 분쟁이 격화되거나, (공식적이지 않더라도) 사실상 당국이 권력을 장악하는 상황에서는 프로그램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분쟁, 불안정 환경에서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범위를 더 넓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은 소말리아에서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구축하는 비정부기구 컨소시엄과의 협력,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성폭력, 성 기반 폭력에 대응하는 국제구조위원회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다변화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늘리려면 국제 비정부기구, 시민사회 조직, 여성 주도 조직, 난민 주도 조직에 대한 자원 지원을 직, 간접적으로 더 유연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효과가 입증된 서비스를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변혁적 현지 리더십을 지원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현지 활동가는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생명선이며, 수단의 사례처럼 지역사회 주도의 **응급 대응 구조**는 수백만 명에게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도적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유엔 주도의 인도주의 개혁 이니셔티브인 **Humanitarian Reset** 역시 현지 리더십을 핵심 우선순위로 강조해 왔지만, 원칙적이고 과감한 현지 주도 원조 전달 체계로 전환하는 데에는 여전히 구조적 장벽이 존재합니다. 국제 비정부기구와 공여자, 유엔은 기술 협력과 연대, 질 높은 지원 예산을

수단 알아자라(Al-Azara)에서 사마가 급성 영양실조 치료를 위해 영양이 강화된 땅콩 기반 치료식(RUTF)을 아들 안와르에게 먹이고 있다.

통해 이 전환을 뒷받침해 왔으나, 이제는 재정적·운영상의 위험을 현지 파트너에게 전가해 온 관행을 멈추고 그 흐름을 되돌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험 관리와 감독, 직원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고, 합의된 위험 완화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부담을 함께 감수하는 실질적인 위험 분담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공여국들은 특히 소규모 현지 파트너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표준화된 파트너십 계약 모델을 공동으로 채택해야 하며, 유엔 주도 공동기금, 현지 주도 기금, 페미니스트 기금 등 다양한 기금 방식이 어떤 유형의 현지 조직에 실제로 도달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유엔 주도 기금은 대규모 재원을 조성·배분하는 데 강점이 있지만 소외되고 취약한 조직에는 접근 장벽이 높은 경우가 많고, 반대로 현지 주도 기금과 여성 주도 조직을 우선하는 페미니스트 기금, 비정부기구 운영 기금은 이러한 조직들의 자원 접근성을 높이는 데 보다 효과적이므로, 목적에 맞는 기금 구조를 선택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 권고 10

### 기후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키워야 합니다.

위기국가에서 기후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인도주의 기후 대응 프로그램은 분절되고 사후 대응에 머무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역사회가 위기에 닥치기 전에 스스로 대응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통합적·선제적 모델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지 주도의 기후적응과 사전 대응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하며, 특히 분쟁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전환이 더욱 시급합니다. 이들 지역은 기후 충격에 가장 크게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 적응을 위한 재정 지원은 여전히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 **기후 취약국의 기후 적응에 재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원조 공여 정부는 기후 재정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 부분을 가장 취약하고 분쟁의 영향을 받는 국가에 배정해야 합니다. 이들 국가들이 가장 취약하지만, 지원은 가장 적게 받기 때문입니다. 공여국들은 개발도상국에 약속한 전체 기후 적응 재정의 19%를 이들 국가를 위한 목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유엔 기후변화협약과 원조국들은, 이들 국가가 지역사회 필요를 반영한 국가적응계획을 수립, 이행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해야 합니다.

▶ **‘사전 대응’에 투자해야 합니다.** 공여국들은 ‘사전 대응’ 시스템에 대한 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는 예측된 기후충격이 지역사회에 닥치기 전에 자금을 집행해 미리 대비하고, 피해를 줄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독일과 영국은 사전 대응에서 선도적 역할을 보여 왔습니다. 독일은 기후 위험에 대한 **글로벌 싯드(사전 대응 자원 확대 이니셔티브)**의 핵심 공여국이며, 인도적 지원 예산의 **5%**를 사전 대응에 투입하겠다고 처음 약속한 나라입니다. 영국은 사전 확정 자원 활용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글로벌 **연합체**를 출범시켰습니다. 사전 대응 재정은 현지 단체와 비정부기구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이고 유연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 결과 기후 위험이 가장 큰 곳에 우선적으로 현금 지원을 집행하는 **‘일기예보에 따른 대응’** 모델로 이어져야 합니다.

키메 카찰라(69세)가 차드 바가 솔라(Baga Sola)의 땅콩밭에서 일꾼들과 함께 서 있다. 그는 국제구조위원회의 지속가능한 기후회복력 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왼쪽) 아마우리 폴트 브라운 (Amaury Falt-Brown)/게타 이미지,  
(오른쪽 위) 무라트 센굴(Murat Sengul)/게타 이미지



# 2026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

## 위기국가 프로필

오른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가자시티에서 한 팔레스타인 소녀가 구호 단체로부터 식량을 받기 위해 냄비를 꼭 쥐고 있다.

2년에 걸친 분쟁으로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들이 파괴되면서,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은 올해 긴급위기국가목록(Emergency Watchlist)에서 두 번째로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도심에서 한 국내실향민이 극장 옥상에 앉아 있다. 전투원들의 지배가 심화되면서 이 지역에서는 기록적인 수준의 기아와 강제 이주가 발생하고 있다.

수단 옴두르만에서 한 여성이 파괴된 모스크 앞을 지나고 있다. 수단은 3년 연속 위기국가 목록에서 가장 심각한 국가로 꼽혔다.

2024년 10월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레바논 시돈에서 한 소녀가 심각하게 파손된 가족의 집 안에 서 있다. 2025년 기준, 레바논 인구의 70% 이상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 01

## 수단

### 처벌 부재가 심화되며 지속되는 잔혹한 폭력

수단은 재앙적인 내전이 4년째 이어지면서,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에서 **3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이후 정부군과 무장 단체 간의 전투로 **15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실제 사망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양측 모두 잔혹한 교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군은 2025년 동안 수도 하르툼과 동부 지역 대부분을 장악하였으나, 무장 단체는 서부 지역인 다르푸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르푸르 지역은 2025년 말, 무장 단체가 정부군이 보유하고 있던 마지막 거점인 북다르푸르 주도 엘파세르를 장악한 지역입니다.

이 분쟁은 파괴적인 기아 위기를 촉발하였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기근이 고착화되었으며, 재난적 수준의 식량 불안정으로 인해 매일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외부 세력들이 자국의 경제적·전략적 이익을 위해 분쟁에 개입하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 주요 데이터



인구 **5,040만 명**



**3,370만 명** 인도적 지원 필요  
어린이 **1,500만 명** 포함(인구의 67%)



인구 **1,920만 명이**  
2025년 10월~2026년 1월 사이에 위기 또는 그 수준 이상(IPC 3+단계)의 식량 불안정에 직면



**20만 7,000명이**  
2025년 10월~2026년 1월 사이에  
재난 수준(IPC 5단계)의 식량 불안정 상태



2023년 4월에 분쟁이 시작된 이래  
**750만 명** 국내 실향민 발생



2024년 12월 이래 콜레라 의심 환자 수  
**10만 건** 이상 발생. 국가 역사상 최대 규모



## 2026년 주요 위기

- **수단의 분쟁은 잔혹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으며, 대규모 민간인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2025년 말, 무장 단체는 수단 서부에서 정부군이 주둔하던 마지막 거점들을 장악하였으며, 보고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광범위한 민간인 공격과 성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무장 단체가 엘파세르 도시를 점령한 직후 사망자가 **6만 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단 남부의 자원이 풍부한 코르도판 지역으로 분쟁이 더욱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유사한 수준의 잔혹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전 당사자들은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고 있으며, 성별 기반 폭력 위험에 노출된 인구는 지난 2년 사이 **세 배**로 증가하였습니다. 분쟁이 확대됨에 따라 포위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련 마을들은 차단되어 원조를 받지 못하고, 피난민들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분쟁이 진정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수백만 명의 안전은 여전히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 **외부 세력들은 전쟁 재원을 지원하며 평화를 위한 노력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정부군과 무장 단체 지도부, 그리고 이들의 지역적 배후 세력은 수단 분쟁을 통해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얻고 있어 타협에 나설 유인이 거의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외교적 해법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량의 금이 수단 밖으로 유출되는 한편, 무기는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2025년 동안 기동지원군과 정부군 모두 더욱 고도화된 무기, 특히 드론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이용해 전력 및 상수도과 같은 핵심 기반시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간인 피해는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024~2025년에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콜레라 유행이 발생하여 **2,5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0만 명 이상이 감염**된 사실은, 수단의 핵심 기반시설이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지를 보여줍니다.

- **기근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이 상황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폭력과 포위전으로 인해 **1,920만 명**, 즉 전체 인구의 약 40%가 IPC 3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식량 불안정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만 명** 이상은 1년 넘게 IPC 5단계에 해당하는 재앙적 식량 불안정을 견뎌 오고 있습니다. 수단 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 생산이 회복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전체적인 식량 불안정을 부분적으로 상쇄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도 하르툼의 치안이 안정되더라도, 고향으로 돌아오는 가족들은 서비스와 일자리, 안전이 사라진 폐허가 된 도시를 마주하게 됩니다.



수단은 현재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분쟁과 기아, 붕괴된 주거 및 위생 서비스, 그리고 제약된 의료 서비스로 인해 1,000만 명 이상이 강제 이주를 겪고 있으며, 인구의 거의 절반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원조에 대한 접근성 또한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 원조를 받을 수 있거나 비교적 안정된 지역에 있더라도 많은 난민들이 수단으로 돌아가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 아짜 알리

국제구조위원회 수단 환경·의료 수석 매니저

- **서로 대립하는 권력 당국과 교착화되는 전선으로 인해 원조의 ‘생명선’이 끊길 위험도 매우 큼.** 무장 단체와 정부군 모두 인도적 지원을 지휘·감독하는 각자의 관료 조직과 상호 경쟁적인 허가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원화된 제도는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원조를 전달하려는 노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무장 단체가 통제하는 지역에 대한 유엔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어서, 해당 지역에서 비정부기구가 실제 원조 필요 수준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원조 활동가에 대한 공격에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단은 현재 원조 활동가에게 세 번째로 위험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025년 전 세계에서 발생한 원조 활동가 공격의 **12%**가 수단에서 발생했습니다. 원조 접근이 축소될수록, 분쟁 지역에 고립된 지역사회는 생명을 살리는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기아와 질병에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 수단에서 국제구조위원회의 활동

2023년 수단에서 분쟁이 시작된 이후, 국제구조위원회는 증가하는 인도적 필요에 맞춰 기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운영 전반에 걸친 막대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블루나일, 게다레프, 하르툼, 리버나일, 남코르도판, 화이트나일에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는 포트 수단에 사무소를 두고 있고, 다르푸르를 포함한 기타 지역들에서의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내전 속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던 수단 옴두르만에서, 한 여성이 모스크 앞을 지나고 있다.

##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2년에 걸친 분쟁으로 인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조건 파괴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조건이 파괴되면서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하마스와 다른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가 이스라엘 남부를 공격해 **1,200명**을 살해하고 200  
명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이후 발생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군사적 충돌은  
가자지구 전역의 기반시설과 시장, 그리고 필수적인 식량·물·주거·의료  
서비스 체계를 체계적으로 파괴했습니다. 건물의 거의 **80%**가 피해를 입거나  
파괴되었으며, 인구의 약 **90%**가 여러 차례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2025년 10월, 미국이 주도하고 여러 국가가 지지한 ‘평화 계획’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이 포함되었고, 이듬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를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26년에는 외부 세력의 압력으로 해당  
지역의 분쟁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제한적인 기대가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전 발효 직후 수주 동안 반복된 위반 사례를 고려할 때, 이러한 낮은  
수준의 분쟁 강도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분쟁 강도가  
낮아지더라도, 인도적 필요는 여전히 절대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안지구에서는 정착민 폭력의 격화와 금융적 제약, 그리고 영토 단절  
문제가 겹치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안전과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 주요 데이터



인구 **530만 명**



가자지구 **인구 전체(200만 명)**가  
기아 위기 수준 이상(IPC 3+단계)에 직면  
2025년 말에는 **64만 1,000명**이  
기근 또는 IPC 5단계 수준의 식량 불안정 상태



**13만 명 이상**의 5세 미만 어린이는  
급성 영양실조



지난 2년간 가자지구에서  
**6만 7,000명** 이상이 사망 (가자지구 보건부)



가자지구 재건에  
최대 **약 530억 달러**가 필요



가자지구 인구의 **90%** 이상이 강제 이주  
(대부분 반복적인 강제이주)

# 2026년 주요 위기

■ **2025년보다 분쟁이 줄어들다고 해도, 가자지구의 폐허 환경 속에서 민간인들은 극심한 고통과 생존의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2023년 이후 이스라엘의 병원·학교·주거지 폭격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 자체가 훼손되었습니다. 또한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2026년 내내 일정 수준의 휴전은 유지되었지만,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은 여전히 엄청난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전쟁 이전 인구의 **10%**가 넘는 가자 주민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료 체계는 완전히 붕괴했고, 온전히 작동하는 병원은 한 곳도 없습니다. **800번**의 의료 시설 공격으로 **36개 병원 중 22개**가 파괴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지 절단 수술 환자들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고향을 떠나게 된 민간인들은 돌아갈 곳이 거의 없습니다. 주거지의 **92%**가 파괴되었거나 거주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2025년 3월 기존 휴전이 결렬된 후 6개월 동안 최소 **1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는데, 이는 현재의 휴전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초래될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 **2026년 내내 기근과 질병은 도처에 존재하는 위협이 될 것입니다.** 가자지구에서 기근은 2025년 8월에 공식적으로 **확인**되었고, 인구의 3분의 1이 재난 수준의 식량 불안정(IPC 5단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140만 명**, 즉 거의 가자지구에 남은 인구 전체가 비상 수준(IPC 4단계)의 **식량 불안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식량 불안정 기록상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가족들은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매일 굶주림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동시에 위생(상하수도·위생) 시스템이 파괴되면서 유행성 감염병에 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악화된 몸이 더 이상 바이러스 감염을 제대로 견디지 못하게 되자, 바이러스 감염은 이제 가자지구에서 분쟁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사망 원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13만 명**의 5세 미만 어린이들이 급성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이는 2024년의 **두 배** 수준입니다. 이런 상태의 어린이들은 평생 성장 지연, 면역 체계 약화, 그리고 장애를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 **강력한 제한 사항과 군부가 주도하는 원조 전달 방식은 원조 접근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가자지구는 해상 봉쇄 상태이며, 육로 및 항공로의 광범위한 폐쇄 조치로 원조 유입이 치명적으로 낮습니다. 2025년 10월 휴전 이후 몇 주 동안, 전달하기로 합의되었던 하루 원조의 14%만 가자지구로 도달했습니다. 또한 2025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운영하는 군부 주도의 식량 배급 거점이 도입된 이후, 원조를 받으려는 **2,500명** 이상이 사망하고 거의 **19,00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모든 비정부기구에 대해 과도한 준수 요건을 부과하면서, 반입 가능한 원조 물품이 엄격하게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휴전 계획으로 이스라엘은 국경 검문소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면서, 군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원조 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절실히 필요한 구호를 대규모로 확대할 길이 막혔습니다.

“우리는 텐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질병은 퍼지고 있었고 물도 부족했습니다. 음식도 부족했습니다. 먹을 식량이 부족해 저의 세 아이는 계속 영양실조에 시달렸습니다. 물은 오염됐고, 상황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 후다  
가자지구 국제구조위원회 고객

■ **서안지구에서는 정착민의 폭력과 금융적 압박으로 팔레스타인 주민의 안전과 필수 서비스 제공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안군의 급습과 정착민 집단의 공격은 이미 **기록적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상황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2026년에는 팔레스타인 가정의 안전과 생계가 더욱 자주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초 이래 이미 약 **4만 명**이 강제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예루살렘 동쪽의 정착지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서안지구를 더 잘게 쪼개 서로 떨어진 ‘섬처럼 고립된’ 구역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내몰리고, 지역사회는 기본 서비스로부터 단절되며, 비정부기구의 활동 능력도 크게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은행과의 거래 관련 예외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위협을 실제로 이행할 경우 상황은 한층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안지구의 금융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의료 종사자와 기타 공무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되며, 동시에 인도적 단체들이 긴급히 필요한 식량과 의약품을 구매·유통하는 방법이 막힐 수 있습니다.

##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 국제구조위원회의 활동

국제구조위원회와 현지 파트너들은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 매일 생명을 구하는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에서는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고, 영양실조 치료, 어린이 보호,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보호 및 역량 강화, 사회심리적 치료 개입, 긴급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대한 인도적 필요를 해소하고자 활동합니다. 서안지구의 국제구조위원회와 파트너들은 사회심리적 치료 개입과 유아 발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응급처치 활동가 역량 강화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엔은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지칭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국가 (State of Palestine)”와 “팔레스타인 점령지역(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를 혼용하여 사용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OCHA)과 많은 동료 기관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점령지역(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oPt)”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 남수단

### 경제 붕괴와 수단 전쟁의 여파 속에서 내전 재발 위험에 직면한 세계 최빈국

남수단은 독립 이래 극심한 폭력과 빈곤으로 고통받아 온 국가입니다. 내전이 다시 발생할 위험이 커지면서, 남수단은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에서 3위에 올랐습니다. 2013년에 발생한 분쟁을 종식시킨 2018년 평화협정은 붕괴되고 있으며, 과거 적대 관계에 있던 살바 키르(수단인민해방운동 지도자)와 리엑 마차르(수단인민해방운동 반대파 지도자) 간의 연립정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리엑 마차르는 현재 반역 혐의로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이웃 국가 수단의 내전은 남수단으로의 난민 유입을 촉발하였고, 국내 긴장이 고조되면서 핵심 석유 수출이 교란되어 경제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보안군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채 불만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로 인해 식량 생산이 초토화되면서, 수백만 명이 인도적 위기의 수렁으로 더욱 깊이 빠지고 있습니다.

#### 주요 데이터



인구 **1,190만 명**



**1,000만 명**(인구의 84%)이 인도적 지원 필요



**760만 명**(인구의 64%)의 인구가  
2026년 4월~7월에 위기 또는 IPC 3+단계의  
식량 불안정 상태 예상



**2만 8,000명**의 인구가 2026년 4월~7월에  
IPC 5단계의 재앙적 식량 불안정 상태 예상



2023년 4월 이래 **100만 명** 이상의  
난민과 귀환민이 남수단에 도착



# 2026년 주요 위기

## ■ 남수단은 내전이 실제로 다시 발생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2018년 평화협정의 핵심 항목은 거의 또는 아예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계획된 선거를 연기했고, 안보 부문 개혁과 무장해제·동원해제·사회복귀(DDR)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키르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수단인민해방운동 내부의 분열이 커지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는 후계 구도를 둘러싼 경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경제 붕괴로 치안병력이 수개월째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미 **1,00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 **200만 명**이 국내에서 강제 이주한 가운데 분쟁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급격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 **수단 내전의 파장이 주변국으로 번지면서 남수단의 국경과 경제가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수단 내전의 양측(무장 단체와 정부군) 모두 역내 보급로에 의존하므로, 민병대를 동원하기 위해 남수단의 깊은 내부 분열을 이용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국경 지역에 새로운 전선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북부에서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수단인민해방운동-반대파와 오랫동안 협력해온 민병대가 북부의 한 군사 기지를 장악한 사건을 보면, 어쩌면 양측이 이미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남수단의 수출의 **거의 전부**와, 그리고 남수단 정부의 재정수입 **90%**가 석유 생산에서 나옵니다. 이 석유는 수단을 경유하는 송유관을 통해 수출됩니다. 이 때문에 남수단 경제는 이웃 국가의 전쟁에 위협할 정도로 취약합니다. 2024년에는 송유관 파손으로 하루 **7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고, 남수단 가정의 생활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수단 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남수단의 석유 의존적 경제는 여전히 매우 취약합니다.

■ **남수단의 취약한 식량 시스템은 붕괴 위험 상태입니다.** 2026년에 접어들며 **2만 8천 명**이 재난 수준의 식량 불안정(IPC 5 단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을 포함한 남수단 국민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5년간** 지속된 경제 침체와 특히 2025년 한 해에만 기록된 **30%**의 경제 역성장으로 인해 대다수 가정이 최소한의 영양 섭취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필수 식품 가격은 4배로 뛰었습니다. 수단으로부터 유입된 **100만 명**의 난민과 귀환민을 포함해 수백만 명이 기본 식료품조차 살 여력이 없습니다. 향후 홍수나 분쟁과 같은 추가적인 충격이 발생할 경우, 작물 재배지와 가축 기반이 파괴되어 시장의 식량 공급 체계 자체가 완전히 마비될 우려가 큼니다. 한편 홍수로 수확물과 가축이 피해를 입으면 시장은 텅 비게 될 것입니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분쟁과 역경을 피해 피난 가는 모습을 보는 일은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이러한 방치로 생긴 피해는 오래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의의 지원자들과 당국이 이러한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나서, 존엄한 삶과 지속 가능한 생계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 아민 조셉 이스마일  
국제구조위원회 남수단 선임 현장관리자

## ■ 폭우 예보로 질병 확산과 홍수 발생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남수단은 2025년까지 6년 연속 대규모 홍수를 겪으며 **9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번 홍수는 누적 사례 **10만 건**을 돌파한 **역대 최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콜레라 유행과 맞물려 의료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과 질병 사태는 인구 **95%**가 농업과 목축에 의존하는 삶에 큰 경제적 타격을 주었습니다. 현재 라니냐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2026년 초 지역사회에 **더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 홍수와 수인성 질병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수단에서 국제구조위원회의 활동

국제구조위원회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남수단 전역에서 분쟁·강제이주·재난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긴급한 인도적 필요에 대응하며 지역사회의 생명줄이 되어 왔습니다. 남수단 내 가장 큰 인도적 활동 주체 중 하나로서, 국제구조위원회는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의료, 보호, 교육, 경제적 역량 강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국가에서 국제구조위원회의 역할은 단순히 생명을 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는 개인과 가족이 존엄과 희망을 되찾고, 다시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삶의 회복’까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웃 국가 수단의 전쟁을 피해 탈출한 남수단 가정들이 남수단 랭크(Renk)에 위치한 귀환 난민을 위한 임시 경우 센터에 도착하고 있다.

# 04

## 에티오피아

여러 지역에서 갈등의 작은 불씨가 재점화되며  
대규모 분쟁 재발 위험 심화

에티오피아는 여러 지역에서 갈등의 작은 불씨가 살아나면서 대규모 분쟁이 다시 발생할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파괴적인 전쟁을 겪었던 북부 티그라이 지역과 인접한 암하라 지역에서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웃 국가인 에리트레아와의 대치 또한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갈등과 주변국과의 갈등이 맞물리면서 에티오피아 북부 전역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으며, 광범위한 분쟁으로 확산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무장 단체의 활동으로 중부 오로미아 지역의 민간인들이 집을 떠나고 있으며, 가뭄과 홍수 등 기후충격도 지역사회의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조 지원 예산이 삭감되면서 에티오피아의 인도적 지원 및 구호 기구들은 인도적 필요를 해소하기는커녕, 중첩된 위기에 대응할 역량조차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 주요 데이터



인구 **1억 3,200만 명**



100만 명의 수용 난민을 포함해 **290만 명**  
(2025년 9월 기준)이 국내로 강제이주된 수용



소말리, 오로미아, 티그라이, 아파르 지역의  
어린이 영양실조율은 **15%**(긴급 수준 초과)



2025년에 식량 배급을 받지 못한 사람이  
**200만 명**



2025년 미국국제개발처가 **3억 8,700만 달러**의  
원조를 삭감 (아프리카 국가 중 최대 삭감)



# 2026년 주요 위기

## ■ 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분쟁의 재발 위험은 2022년 분쟁에서 아직도 회복 중인 민간인을 다시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0~2022년 분쟁은 주로 티그라이의 집권 세력인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과, 에리트레아 및 암하라 지역 세력의 지원을 받는 연방정부 간 충돌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 내부의 분열과, 연방정부와 암하라-에리트레아 세력 간 긴장 고조로 2022년 평화협정은 불안정해졌습니다. 또한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는 국경 문제를 둘러싸고 여전히 소유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에리트레아 병력이 계속해서 티그라이 일부 지역을 점령하자, 북부가 대리전의 전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대규모 분쟁을 촉발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민간인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티그라이는 2022년 이후 거의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약 **80만 명**의 난민이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투가 확대되면 인도주의 시스템이 빠르게 압도되어 수백만 명이 식량과 주거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 ■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넓고, 다른 지역과 가장 많이 연결된 오로미아 지역에서 무장 단체 활동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대규모 강제이주의 위험이 촉발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오로모해방군과 정부군 사이에 충돌이 있었고, 전투가 오로미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28만 8천 명** 이상이 안전을 찾아 집을 떠났습니다. 생계가 붕괴되었고, 어린이 영양실조는 **긴급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가족들이 폭력과 빈곤을 피해 떠나면서 이주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로미아는 에티오피아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이 지역의 불안정은 국가 경제뿐 아니라 교역 상인과 인도적 지원·구호 기구가 이용하는 주요 물류 및 공급 경로까지 교란합니다. 그 결과 인도적 필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 ■ 기후충격(홍수, 가뭄 등)이 급성 기아와 감염병 유행을 몰고 다닐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적인 라니냐(La Niña)

현상의 영향으로 2026년 초까지 에티오피아 북부에는 홍수가, 남부에는 가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수는 작물을 파괴하고 식수를 오염시켜, 이미 **6,8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콜레라 확산세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남부 목축 지역은 가뭄으로 수확과 목초지, 가축이 치명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수년에 걸친 가뭄 피해가 누적되어 정상적인 비만으로도 가축 떼는 소실되고 지하수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빗을 안은 가정은 원상복귀가 더욱 어렵습니다. 2026년에 홍수가 더 강력해지면 강제이주와 수인성 질병이 함께 늘어 수백만 명이 질병 관련 사망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강제 이주를 당한 후... 우리는 사막으로 피난갔습니다.... 저는 진통이 와서 한 농부의 집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 비르헤 구시 웰데브키엘

에티오피아 국제구조위원회 고객

## ■ 원조 삭감으로 필수적인 기초 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25년 미국 국제개발처는 에티오피아에 대한 원조

예산을 **3억 8,700만 달러** 삭감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큰 폭의 삭감이었습니다. 이러한 원조 재정 부족은 여러 공공 서비스 프로그램의 실행을 압박해 식량 배급이 중단되었고, **5,000명** 이상의 의료 종사자가 해고되었습니다. 인도적 대응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2025년에 식량 배급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미 **200만 명**에 달했습니다. 또한 세계식량계획(WFP)은 **360만 명**이 식량 원조를 받지 못하고, **65만 명**의 여성과 어린이가 중요한 영양실조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급증하는 인도적 수요와 급감하는 지원 사이의 간극이 빠르게 벌어지면서, 취약 계층은 생존에 필수적인 서비스로부터 완전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 에티오피아에서 국제구조위원회의 활동

국제구조위원회는 2000년에 에티오피아에서 활동을 시작해, 이웃 국가에서 넘어온 난민과 위기의 영향을 받는 취약·소외 지역의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분쟁, 자연재해, 기후충격 등 반복되는 난제에 계속 직면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취약계층에 불균형적으로 집중됩니다. 국제구조위원회는 의료, 영양, 어린이보호, 교육, 여성 보호 및 역량 강화, 경제 회복 및 개발, 환경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아프데라(Afdera) 마을에서, 한 국내실향 남성이 임시 거처로 머물고 있는 학교로 자신의 소지품을 옮기고 있다.

# 05

## 아이티

### 갱단의 지배와 통치가 역대 최고 수준의 기아와 강제이주 위기

갱단이 지배하고 원조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아이티는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에서 상위 5위에 올랐습니다. 2026년에는 수백만 명의 아이티 국민이 악화되는 폭력과 기아, 강제이주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 암살 이후 계속된 정치적 혼란은 정부의 통제력과 치안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켰습니다.

무장 갱단은 사실상 수도 포르토프랭스 대부분을 장악했으며, 현재는 북부와 서부로 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와 아르티보니트, 상트르 주 전역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질서 회복을 목표로 한 국제적 지원은 반복적으로 실패해 왔으며, 현재 아이티를 이끄는 대통령 과도위원회의 임기가 2026년 2월 종료됨에 따라 갱단이 악용할 수 있는 거대한 권력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치안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민간인들은 갱단의 직접적인 표적이 될 뿐만 아니라, 갱단과 치안 당국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교전의 희생자가 될 위험에도 놓여 있습니다. 갱단의 지배가 강화되고 원조 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2026년에도 아이티 전역에서는 폭력과 기아, 강제이주가 만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아이티는 자연재해 등 환경적 충격에 대한 회복력이 극도로 낮은 취약국입니다.

#### 주요 데이터



인구 **1,180만 명**



**640만 명**(전체의 54%)이 인도적 지원 필요



2023년 이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1,000%** 증가



2025년 3월~6월에 **570만 명이**  
위기 이상(IPC 3+단계)의 식량 불안정 상태 직면



지원 예산 부족으로 2,500명의 유엔 지원 임무 요원 중  
이 지역에 배치된 인력은 **40% 미만**



## 2026년 주요 위기

- **민간인은 갠단의 폭력과 치안 당국의 비효율적인 대응으로 더 급감하는 원조와 새로운 환경적 충격으로 아이티의 위기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아이티의 인도적 대응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에 기아가 악화되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충분한 식량과 의료 물자를 얻지 못할 위험이 큼니다. 지원 예산 삭감으로 170만 명이 원조를 받지 못할 위험에 있으며, 2026년 중반에 예상되는 허리케인의 위험도 상당합니다. 아이티는 지진, 홍수, 폭풍에 매우 취약하며, 원조 역량이 최저인 상태에서 단 한 차례의 대형 충격만으로도 수백만 명이 추가로 재앙 상태로 내몰릴 수 있는 거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갠단은 수도와 그 밖의 지역까지 **90%** 이상을 장악하고, 혼란을 이용해 불법 갈취와 납치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6년에 안전을 찾고자 하는 민간인에게는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2025년 첫 9개월 동안 **8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살해되었는데, 이는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두 배 이상**입니다. 한편 국가 치안군은 소형 폭발물을 탑재한 **자폭형 드론**을 갈수록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주거지역에서 폭발해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를 초래했습니다. 2025년 10월 승인된 새로운 유엔 '갠단 진압 부대'는 2026년에 치안 개선을 목적으로 창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티를 위한 국제 지원 임무단은 폭력에 중지부를 찍지 못했으며, 2024년에 배치된 다국적 안정화 임무단도 재정과 장비 부족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임무단의 개입은 오히려 갠단과 치안 당국 간 교전 사이에 끼인 민간인의 희생과 피해를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 **폭력이 수도를 넘어 밖으로 확산하면서 강제이주와 기아는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달고 있습니다.** 갠단 활동이 수도 외곽으로 확산되면서 민간인은 안전을 찾아 집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강제이주를 당하고 있습니다. 강제이주는 **기록적인 수준**까지 치솟아 **140만 명**(인구의 10% 이상)이 고향을 떠났고, 이 가운데 **절반**은 어린이입니다. 사람들은 새로 만들어진 자연발생적 임시 대피소로 피신하지만, 그곳에서는 식량과 원조 접근이 제한돼 기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만 거의 100만 명이 추가로 위기 수준에 처했고, 그 결과 **인구 절반 이상**이 이미 위기 수준의 기아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이주 대피소에서는 재난 수준(IPC 5단계)의 식량 불안정 상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매일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폭력과 강제이주가 계속 증가하면 2026년에는 아사 위험이 악화되고, 원조 접근이 어려운 지역사회도 늘어날 것입니다.

“아이티는 정치적 불안정과 확산하는 갠단의 폭력이 결합하여 전례 없이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30만 명이 이상이 고향을 떠나 국내 다른 지역으로 강제이주를 해야 했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생명을 살리는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만, 지원 예산은 인도적 대응에 필요한 자원의 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 파스티르 루버린트와리  
국제구조위원회 아이티 프로그램 부국장

- **여성과 어린이는 증가하는 성폭력과 갠단의 강제 징집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갠단은 지역사회 통제력을 강화하고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 성폭력을 **체계적**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한 젠더 기반 폭력 사례는 **6,000건**으로 기록되었으며, 2024년의 **4,000건**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다만 실제로 상당히 과소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의 갠단 징집이 확대되면서, 유엔은 현재 갠단 구성원의 **절반이 어린이**라고 평가합니다. 2025년 첫 3개월 동안 어린이 징집은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700%**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폭발적 증가는 갠단의 공세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며, 2026년에 여성과 어린이에게 더 큰 위험이 닥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원조 급감과 새로운 환경적 충격이 가해지며 아이티의 위기는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아이티의 인도적 대응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에 기아가 악화되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충분한 식량과 의료 물자를 얻지 못할 위험이 큼니다. 지원 예산 삭감으로 **170만 명**이 원조를 받지 못할 위험에 있으며, 2026년 중반에 예상되는 허리케인의 위험도 상당합니다. 아이티는 지진, 홍수, 폭풍에 매우 취약하며, 원조 역량이 최저인 상태에서 단 한 차례의 대형 충격만으로도 **수백만 명**이 추가로 재앙 상태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 아이티에서 국제구조위원회의 활동

국제구조위원회는 2010년부터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 왔으며, 시민사회 조직과 지역 활동 주체 네트워크와 협력해 국내 강제이주와 장기화된 갠단 폭력의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를 지원해 왔습니다. 2022년 12월 이후로는 국내 강제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콜레라 예방과 젠더 기반 폭력 등을 포함한 폭력 생존자 지원에 활동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엑손(Exxon)이 아이티 포르토프랭스의 자택 인근에서 발생한 갠단 간 충돌로 부상을 입은 여섯 살 딸 프란체스카(Francesca)를 보호하듯 꼭 안고 있다.

사진: 리처드 피에린(Richard Pierrin)/게티이미지

# 06

## 미얀마

### 분쟁과 지진의 여파로 인한 수백만 명의 미얀마 사람의 인도적 지원 필요

끊이지 않는 분쟁과 반복되는 재난, 그리고 붕괴하는 원조로 인해 미얀마는 3년 연속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 상위 10개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1년 초 군부가 권력을 장악한 뒤 거의 5년이 지났지만, 비국가 무장 단체와 중앙 군정 간의 폭력적 분쟁은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 2023년 이후 미얀마의 주요 비국가 무장 단체 3곳은 더 긴밀히 연대해, 미얀마의 향후 지도체제를 둘러싸고 중앙 당국과 싸워 왔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더 내륙 깊은 지역의 영토를 두고 경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일부 세력과 군 당국 사이에서 제한적 휴전을 여러 차례 중재해 특정 지역의 교전을 완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지역에서는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 공여국들이 원조를 삭감하고, 2025년 지진으로 파괴된 기반시설의 피해가 여전히 이어지면서, 2026년 미얀마의 인도적 대응은 극심한 난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 주요 데이터



인구 **5,450만 명**



**1,620만 명**(전체의 30%)이 인도적 지원 필요



2021년 이후 최대 **9만 명**이 사망



2025년 인도적 지원 필요와 대응 계획 지원 예산 중  
2025년 12월 현재 **16.7%**만 제공



2025년 3월 지진 이후 4개월간  
**1,000회** 이상의 공습과 드론 공격



2025년 3월 지진으로 **110억 달러**  
(미얀마 GDP의 15%)의 피해 발생



# 2026년 주요 위기

■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 분쟁 경합지가 되며 민간인의 안전이 더 위협받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민간인이 비국가 무장 단체와 군정 간 교전의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다수의 무장 세력은 광물, 천연가스, 목재 등 천연자원 착취를 활동 재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와 태국 접경지대에서 충돌이 발생하며 안전한 이동이 제한되고,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 피난하도록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민간인은 전국의 분쟁 지역에 고립돼 있습니다. 2021년 이후 약 **9만 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최소 **6,700명**은 민간인이었습니다. 군정은 2025년 12월 하순 예정된 선거를 앞두고 중앙 경합지에 대한 통제권 회복을 시도했지만, 무장 단체들은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2026년 민간인은 강제이주 위협과 공습을 포함한 표적 공격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폭발성 무기에 의한 민간인 사망자 수는 2021년 이후 **8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 **공여국의 지원 예산이 극히 낮아 수천만 명, 특히 여성과 어린 소녀들이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2025년에 약 **1,70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했지만, 활동 주체들은 그중 약 4분의 1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마저도 글로벌 원조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얀마는 2025년 ‘인도적 지원 필요와 대응 계획’ 기준으로 **두 번째로** 재원이 부족한 국가였습니다. 과밀하고 조명이 부족한 대피소에 머무는 여성과 소녀들은 특히 위험에 노출됩니다. 줄어든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조혼, 친밀한 관계 폭력, 인신매매, 성적 착취와 학대가 **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젠더 기반 폭력 대응과 생식 의료 지원에 대한 재원 **감소**로, 2026년에는 이러한 위험이 더 커질 것입니다.

■ **지속되는 분쟁과 2025년 지진으로 기반시설이 파괴되며, 기후충격의 피해가 확대됩니다.** 미얀마는 사이클론, 홍수, 산사태, 지진에 매우 취약한 국가입니다. 자연재해는 새로운 인도적 필요를 만들 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추가 충격에 대비,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의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2025년 3월 규모 7.7의 지진으로 **200만 명이** 추가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가 됐고, **3,8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장 분쟁과 자연재난이 맞물리며 민간인 위험이 어떻게 증폭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유엔은 지진 직후에도 공습이 계속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일부 무장 단체가 벌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숲이 사라져 홍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진 이후 기본 생필품의 가격이 거의 세 배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맞추기가 어려워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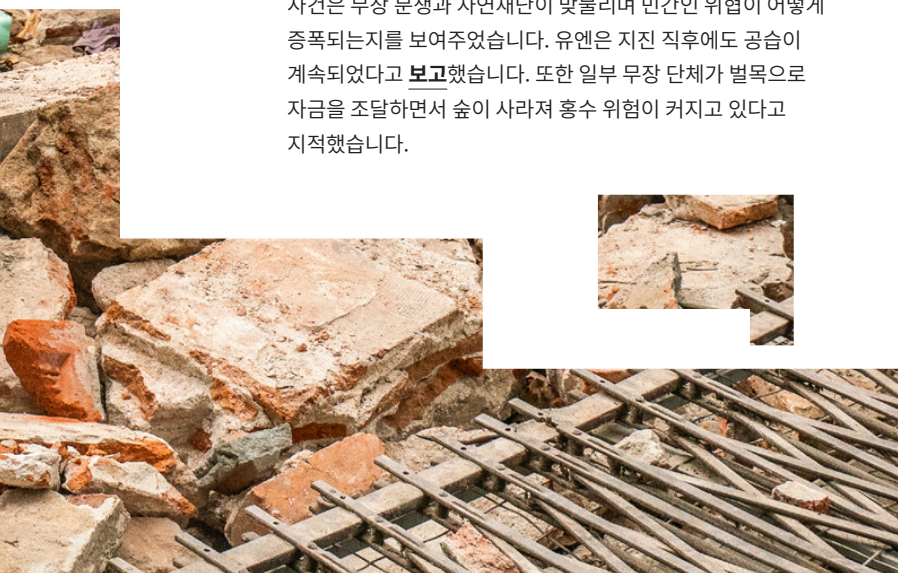


— 탄 진 트웨  
미얀마 국제구조위원회 고객

■ **분쟁, 물리적 장벽, 경제 위기로 원조 전달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전투와 각종 허가, 통제 절차로 인해 미얀마는 인도적 지원 접근이 가장 어려운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25년 3월 지진으로 핵심 도로가 **파손**되면서, 일부 오지 지역사회는 원조 접근이 더 제한되었습니다. 지진은 기반시설과 경제 전반에도 피해를 남겼습니다. 강제이주자와 실업 상태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전쟁으로 지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필수품 가격은 급격히 상승해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 미얀마에서 국제구조위원회의 활동

미얀마 국제구조위원회는 2008년 사이클론 나르기스 이후 긴급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활동을 확대해 왔습니다. 2021년 2월 이후 격화된 분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 소외되고 국적이 없는 지역사회를 지원해 왔습니다. 현재 국제구조위원회는 6개 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025년 3월 지진 피해 지역에 대한 긴급 대응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포함됩니다.



2025년 4월,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한 남성이 지진으로 파괴된 건물의 잔해를 뒤지고 있다.

## 콩고민주공화국

### 동부 지역 폭력과 천연자원 착취 억제에 실패한 평화협정

콩고민주공화국은 평화협정이 동부의 폭력에 중지부를 찍지 못하면서,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 상위 10개국에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5년 6월 콩고민주공화국과 르완다 간 평화협정이 있었지만 정부군과 르완다의 지원을 받는 3월 23일 운동(M23) 사이의 무력 충돌은 오히려 격화되었습니다. M23은 동부에서 영토를 계속 확장하며 가치가 높은 희토류와 금 광산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동부 콩고민주공화국에는 우간다, 부룬디, 르완다 병력이 주둔 중이며, 다양한 지역 무장 집단도 활발히 활동합니다. 이들은 광물과 자원 통제권을 두고 자주 경쟁하고 충돌합니다. 그 결과 민간인은 충돌을 피해 안전을 찾아 반복적으로 강제이주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적 수준의 식량 불안정과 콜레라, 홍역, 엡폭스, 에볼라 같은 감염병의 반복 유행이 추가 위협을 더하고 있습니다.

#### 주요 데이터



인구 **1억 920만 명**



**1,490만 명**이 인도적 지원 필요



최대 **2,800만 명**이 위기 이상(IPC 3+단계)의 식량 불안정 상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 중 390만 명은 긴급 단계(IPC 4+단계)



2025년 10월까지 **58,000건** 이상의 콜레라 의심 환자가 발생해 **1,700명 이상**이 사망



**120개 이상**의 무장 단체가 동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활동 중



2025년 필수 식품 가격은 **37%** 상승



# 2026년 주요 위기

## ■ 무장 단체들은 영토를 장악해 광산 이익을 노립니다.

그 과정에서 폭력과 착취가 심화됩니다. 콩고민주공화국과 르완다 간 평화협정은 폭력을 줄이는 데 실패했습니다. 협정 체결 이후 **2,100명** 이상이 살해되었으며, 무장 단체들이 동부 전역의 광산을 착취해 활동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적 문제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23이 장악한 한 지역에서는 **1만 명** 이상의 소규모 채굴자(어린이 포함)가 매일 골탄을 채굴합니다. 유엔 전문가들에 따르면 폭력 종식을 위한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에도 2025년에는 전례 없는 규모로 분쟁 광물이 **밀수출**되었습니다. M23은 징집을 확대하고 지역 대리 민병대를 무장시키는 등 2025년 초 이후 병력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 이는 추가 공세 준비를 시사합니다. 폭력의 속도가 외교를 앞지르면서 민간인은 최악의 잔혹행위와 학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 분쟁에 지친 주민들은 기록적인 기아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약 **2,800만 명**이 위기 이상(IPC 3+단계)의 식량 불안정 상태에 있습니다. 식품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고, 분쟁으로 지역사회의 식량 기반이 무너져 2026년에도 기아는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부에서 M23의 공세는 농업, 시장 교역 등 핵심 기반을 교란해, 기아가 평소보다 더 빠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아는 분쟁 영향을 받는 동부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물 수출로 생긴 부와 경제 성장이 일반 주민에게 전달되지 않으면서, 인구의 **73%**는 여전히 극빈층 수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식량 불안정이 농촌과 도시 전반으로 퍼지고 있으며, **820만 명** 이상의 어린이와 임산부가 영양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 ■ 붕괴하는 의료 서비스로 새로운 질병 유행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10년 중 최악 수준의 콜레라 유행이 확산 중입니다. 과부하 상태의 의료 시스템이 흔들리면서 2026년에는 더 많은 지역사회가 콜레라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다른 감염병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는 **16번째** 에볼라 유행이 발생했습니다. 치안 불안으로 동부 지역사회는 새로운 질병 유행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분쟁 영향을 받는 북키부, 남키부 지역의 진료소 중 **85%**는 의약품이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보고합니다. 또한 거의 **40%**는 핵심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북키부에서는 분쟁으로 2025년 중반까지 의료시설의 **70%**가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대규모 강제이주, 붕괴한 상하수도 시스템,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반복적 홍수는 2026년에도 질병 유행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피난 후 부모님과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길거리에서 살았죠. 국제구조위원회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위탁가정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안전하고, 지원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저의 가장 큰 소원은 여전히 부모님을 찾는 것입니다.”



— 장틸

콩고민주공화국 국제구조위원회 고객

## ■ 원조 삭감과 접근성 악화가 인도적 대응을 와해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지원 예산 축소와 접근성 악화는 동부 지역의 인도적 활동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2025년 미국 국제개발처 기능 축소로 아프리카에서는 **두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는 세 번째로 지원 예산이 크게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원조 활동가에 대한 공격이 늘고 있습니다. 2025년 첫 9개월 동안 보안 사고는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33%** 증가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 활동이 주둔 규모를 줄이면서 불안정과 원조 수송대 공격 위험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원 예산이 빠르게 복구되고 보안이 개선되지 않으면, 수백만 명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 콩고민주공화국에서 국제구조위원회의 활동

국제구조위원회는 1996년부터 콩고민주공화국에서 활동하며 위기에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복지 향상을 지원해 왔습니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에 활동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의료, 영양, 식수 위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30만 5,000명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 강화, 여성 역량 강화, 지역사회 운영 및 의사결정 체계 촉진에도 기여했습니다.

사피 키싱길라(Safi Kisingila)의 딸 페자(Feza)는 영양실조를 겪었으나, 콩고민주공화국 칼레미(Kalemie)에서 국제구조위원회의 치료를 받았다.

## 말리

### 무장 단체의 세력 확대에 따른 지역사회의 지원 부재

말리는 무장 단체가 수도 주변의 핵심 보급로를 표적으로 삼으면서,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 상위 10개국에 3년 연속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말리는 지난 5년 동안 두 차례의 군사 쿠데타, 무장 단체 활동 급증, 프랑스군 철수, 러시아 준군사 인력 유입 등 정치, 외교적 격변을 겪어왔습니다. 현재 말리 군정은 알카에다 및 이슬람국가(IS)와 연계된 무장 단체, 그리고 투아레그 민족의 자치 확대를 추구하는 세력과 여러 전선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자마아트 누스랏 알이슬람 왈무슬리민(JNIM)이 말리 중부와 남부로 세력을 넓혔습니다. 그 결과 수도 바마코로 들어오는 연료와 물자 이동이 더 제한되었습니다. 분쟁 전선이 바뀌는 가운데 시장과 농업이 교란되고 주민들은 강제이주를 겪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아 위기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 주요 데이터



인구 **2,450만 명**



**510만 명**이 인도적 지원 필요



**40만 명 이상**이 국내에서 강제이주



2025년 중반에 **150만 명**이  
위기 이상(IPC 3+단계) 수준의 식량 불안정 상태.  
이 중 약 3,000명은 재난 단계(IPC 5단계)



5세 미만 급성 영양실조 어린이 **150만 명**이며,  
이 중 31만 5천 명은 중증 급성 영양실조



2025년 지원 접근 제한 및 예산 제약에 따른  
**190만 명**의 필수 의료 서비스 접근 불가



# 2026년 주요 위기

■ **급변하는 전선과 봉쇄로 지역사회가 필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장 단체들이 갈수록 주요 교통로 주변에 주둔하면서 핵심 수입품 유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민간인은 기초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자마아트 누스라트 알이슬람 왈무슬리민(JNIM)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말리와 세네갈, 코트디부아르를 잇는 주요 고속도로에서 트럭을 반복 공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마코로 들어오는 물자의 흐름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말리 연료의 **95%**가 이 경로로 공급됩니다. 연료 부족은 발전기에 의존하는 병원, 학교, 상수도 시스템의 기능을 이미 훼손시켰습니다. 치안 악화로 2025년 상반기에는 **60만 명** 이상이 다니던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기존에 이미 교육을 받지 못하던 학생까지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이 교육 공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말리 정부는 북부에서 투아레그 분리주의 세력의 압박도 다시 받으며 역량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보급로 접근이 회복되지 않고 분쟁도 완화되지 않으면, 수백만 명이 기본 서비스 없이 방치될 위험이 커집니다.

■ **치안 악화로 시장과 운송, 연료 접근이 흔들리며 기아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폭력이 확산되고 농사 주기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도로 봉쇄로 운송과 교역이 막히면서 수십만 명이 식량을 온전히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JNIM이 남부로 세력을 확장하기 전에도 이미 **150만 명**이 위기 이상(IPC 3+단계)의 식량 불안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북동부 메나카 지역에서는 약 **3,000명**이 재난 단계(IPC 5단계) 상태였습니다. 군정이 무장 단체와의 전투를 우선순위로 두는 가운데 서비스가 붕괴하고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특히 농촌에서 식량 불안정 위험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취약한 인도주의 시스템으로는 민간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더 어렵습니다.** 원조 전달은 두 가지 큰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는 치안 악화, 다른 하나는 원조국 지원 감소입니다. 말리의 대응 재원은 2025년에 재앙적으로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12월 기준으로 유엔 대응 필요 예산의 **18.5%**만 확보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 중 최저 수준입니다. 전국적인 치안 불안도 원조 전달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원조 활동가에 대한 폭력, 이동 제한, 접근 제한은 2025년 상반기 내내 2023년 ~2024년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분쟁이 심화될수록 수백만 명이 필요한 원조를 받지 못할 가능성은 커집니다.

“인류애가 움츠러드는 곳에 나는 발을 딛는다.”  
이는 지원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섬기겠다는 말리 국제구조위원회의 약속입니다... 현재 **1,000명** 이상의 (식량) 생산자가 개량된 종자를 이용할 수 있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더 잘 견딜 수 있으며, 식량 원조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기술 및 재정적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 하마둔 코무  
제구조위원회 말리 경제회복 및 개발 조정관

■ **대규모 강제이주와 치안 혼란 속에서 여성과 어린 소녀들이 방치될 위험이 큼니다.** 현재 **40만 명** 이상의 강제이주민 중 **절반 이상**이 여성과 어린 소녀들입니다. 다수는 임시 캠프에서 생활하며 안전공간이나 보호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여성과 소녀들은 폭력과 학대에 특히 취약합니다. 치안이 더 악화되면서 납치, 강제 결혼, 성폭력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보호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젠더 기반 폭력 생존자에게 진료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시설은 전체의 **4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기본 서비스가 마비되고 보호 지원 예산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성별 기반 폭력 생존자들은 갈수록 ‘지원 없는’ 위기를 견뎌야 할 것입니다.

## 말리에서 국제구조위원회의 활동

국제구조위원회는 2012년부터 분쟁의 영향을 받은 어린이, 여성, 국내 강제이주민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 왔습니다. 의료와 영양, 경제 지원, 폭력 및 강제이주로부터의 보호, 교육, 식량안보, 필수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목표로 통합적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모리타니아 남동부에 위치한 엠베라 난민캠프에서 두 남성이 임시 거처 앞을 지나가고 있다. 이 캠프는 말리의 폭력과 불안정한 상황을 피해 온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다.

## 부르키나파소

### 폭력의 격화와 포위 전술로 인한 지역사회의 위기 심화

부르키나파소는 4년 연속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의 상위 10개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슬람국가(IS) 및 알카에다와 연계된 무장 단체들은 지난 8년간 납치, 강제 징집, 민간인 공격을 갈수록 확대해 왔습니다. 부르키나파소 정부가 '조국방위 자원봉사대'로 알려진 지역 무장 세력에 의존하면서 폭력과 강제이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장 단체는 도시를 봉쇄해 100만 명 이상이 식량, 식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조 기관의 대응 역량 역시 치안 악화, 이동 제한, 지원 예산 감소로 크게 제약받습니다. 여기에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까지 더해지면서 강제이주는 늘고, 분쟁 영향을 받는 지역의 인도적 위험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 주요 데이터



인구 **2,350만 명**



**440만 명**의 인구가 인도적 지원 필요



2025년 첫 10개월 동안 **4,600명 이상**이  
분쟁과 관련하여 사망



**210만 명**이 국내에서 강제이주



**29개**의 도시가 봉쇄되어 110만 명 이상이 고립



## 2026년 주요 위기

- **격화되는 폭력으로 민간인들은 무장 단체와 정부군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현재 사헬 지역 분쟁의 중심지로 제시됩니다. 2024년 6월부터 2025년까지 알카에다 또는 IS 연계 무장 단체 관련 폭력 사망자의 **55%** 이상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2025년 첫 4개월 동안 민간인 **5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군이 무장 단체 억제에 고전하는 가운데, 인접한 말리에서도 폭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르키나파소 정부는 도시와 보급로 방어를 위해 조국방위 자원봉사대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긴장을 키우고 민간 피해를 확대합니다. 폭력이 도시 지역으로 번질수록, 민간인은 직접 공격과 강제이주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됩니다.

- **포위 전술과 원조 활동에 대한 공격으로 생명구조 지원이 막히고 있습니다.** 2025년 무장 단체는 최소 **29개** 도시와 마을(거주 110만 명)을 봉쇄했습니다. 원조 수송대도 공격해 구호 활동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분쟁과 이동 제한으로 가족들은 제한된 식량에 의존하며, 필수 서비스 없이 버텨야 합니다. 원조 접근이 막히면서 인도적 활동 주체는 봉쇄 지역의 필요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식량 불안정 같은 핵심 데이터 수집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2023년 평가에 따르면 **수천 명**이 재앙 단계(IPC 5단계)의 식량 불안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매일 아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봉쇄가 더 확대되면 2026년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더 많은 지역사회로 번질 수 있습니다.

- **원조 삭감과 제한적인 정책으로 취약한 서비스 시스템이 붕괴 직전입니다.** 정부가 기본 서비스보다 안보 작전을 우선시하면서 서비스 제공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전 세계적 원조 삭감은 위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200만 명** 이상이 의료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의료시설의 약 **5분의 1**이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예방접종과 응급진료 제공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도주의 활동과 데이터 수집에 대한 통제 강화 등 운영상의 새로운 제약도 생겼습니다. 그 결과 가장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의 원조 전달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인구의 **40%** 이상이 빈곤 속에 살며 필수 치료를 받을 여력도 부족합니다. 2026년에는 질병이 더 빠르게 확산되고 기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불안정도 심화되며 ‘박탈의 악순환’이 고착될 위험이 큼니다.

“가족이 폭력을 피해 도망칠 때, 그들은 땅, 수확, 희망 등 모든 것을 잃습니다. 우리는 국가 농축산 이니셔티브에 기반해 그들이 존엄한 생계를 다시 찾도록 돕습니다.”



— 타니 코르네뉴 하로

국제구조위원회 부르키나파소 선임 경제회복 및 개발 담당관

- **불규칙한 강우와 기후충격이 위기를 더 악화시킵니다.**

라니냐 현상은 예측하기 어려운 강한 강우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기 동안 또 한차례의 홍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반복된 홍수로 많은 가정이 비축 식량과 농지를 잃었습니다. 특히 목축에 의존하는 가정은 가축의 생존이 위협받아 생계 타격이 큼니다. 이런 기후 압력은 분쟁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더 키웁니다. 가정이 소득을 얻거나 식량에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선택지는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생계 기반이 무너질수록, 제한된 대응 수단은 가족을 더 깊은 빈곤으로 내몰 가능성이 큼니다.

### 부르키나파소에서 국제구조위원회의 활동

국제구조위원회는 2019년부터 부르키나파소에서 분쟁과 식량 불안정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인도적 필요를 지원해 왔습니다. 지원 분야는 식수, 위생, 의료, 영양, 경제 회복, 보호, 여성 역량 강화, 거버넌스 등입니다. 국제구조위원회는 관련 당국과 지역 국제 파트너와 협력해 7개 지역에서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지역사회가 생존하고 회복하며 미래를 재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에서 온 난민이 코트디부아르 북부 우앙골로두구(Ouangolodougou) 인근에 위치한 니오르니게(Niornigué) 캠프의 진흙벽돌 임시 거주 앞을 지나고 있다.

# 10

## 레바논

### 분쟁 위협의 확대와 지속되는 경제 붕괴 상태

레바논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비국가 무장 단체인 헤즈볼라 사이에서 분쟁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1년간 긴장이 높아진 끝에, 2024년 말 양측은 잔혹한 분쟁에 돌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레바논에서는 **140만 명**이 강제이주를 했고, 이스라엘인 **9만 6,000명** 이상도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으로 레바논에서는 **4,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반대로 헤즈볼라와 레바논 기반 다른 무장 단체가 발사한 로켓으로 이스라엘 북부 민간인 **47명**이 사망했습니다. 분쟁은 2024년 11월 휴전으로 일단 중단됐지만, 2025년 말 다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이 분쟁 위협은 레바논의 심각한 경제 붕괴와 맞물려 있습니다. 현재 인구의 약 **80%**가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2026년에 분쟁이 재발하면, 레바논의 취약한 서비스 체계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인도적 필요는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큼니다.

#### 주요 데이터



인구 **580만 명**



2025년, **410만 명**(전체의 71%)이  
인도적 지원 필요



2025년 7~10월에 **120만 명**이  
위기 이상(IPC 3+단계)의 식량 불안정 상태



**170만 명**이 난민이며  
이는 1인당 세계 최고 수준



2023~2024년 분쟁으로 인한  
**최대 110억 달러** 가치의 기반시설 피해



## 2026년 주요 위기

- **분쟁이 재개되면 민간인 피해와 강제이주가 다시 급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휴전 이후 폭력은 줄었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휴전 발효 뒤 몇 달 동안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 **1,000회** 이상 공습을 했고, 민간인 **103명**이 사망했습니다. 레바논 남부로의 간헐적 지상 **침투**도 있었습니다. 2025년 말에는 레바논-이스라엘 분계선 일대에서 군사 활동이 다시 활발해졌고, 이스라엘은 불과 몇 달 후 베이루트를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레바논 당국에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남부 주둔을 이유로 이를 거부합니다.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레바논 남부의 유엔 평화유지군 임무는 2026년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가자지구 휴전이 대체로 유지되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 더 집중할 수 있어 재확전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이 다시 진격한다면, 특히 리타니강 남쪽 완충지대를 넘을 경우—수십만 명이 강제이주하고 민간 기반시설이 크게 파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경제 붕괴로 대부분의 가정은 충분한 식량을 구매할 여력이 없습니다.** 레바논 리라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3월 사이 **98%** 이상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으며, 2023년~2024년 분쟁은 경제난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약 **110억 달러** 규모의 기반시설이 파괴됐고, 농업, 관광, 제조업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인구의 **80%**가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의료, 전기, 교육에 대한 접근도 어렵습니다. 2025년 말 기준 **120만 명**이 위기 이상(IPC 3+ 단계)의 식량 불안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식사를 거르거나, 가족 생계를 위해 자녀의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수준을 뜻합니다.

- **붕괴한 공공 서비스 체계는 급증한 지원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평가에 따르면 레바논에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는 **410만 명**입니다. 이는 주로 2023년~2024년 분쟁의 장기적 영향 때문입니다. 2024년 말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으로 병원 **67곳**이 파괴됐고, 의료시설 **150곳** 이상이 폐쇄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천 명이 의료와 핵심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공공 서비스는 재원이 부족해 한계에 몰려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최소한의 지원 속에서 생계와 안전의 위협을 계속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큼니다.

“오늘날 레바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정신 건강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고통의 규모는 도움을 달라는 절박한 외침과도 같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도움이 가장 절실한 시기에 인도적 지원 예산이 크게 삭감되고 인도적 활동 주체들이 점차 철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레이먼드 하브

국제구조위원회 레바논 정신 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책임자

- **시리아 난민들은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귀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약 **15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1인당 난민 수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극빈 상태이며, 법적 지위도 불안정해 합법적 취업이 어렵습니다. 2025년에는 단속이 강화되며 급습, 퇴거, 체포가 늘어났습니다. 많은 시리아인의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시리아는 경제 붕괴와 치안 불안이 지속돼, 대규모 귀환이 이뤄지더라도 안전하고 존엄한 정착은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의 시리아 난민 지원 계획은 재원이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2025년에 필요한 예산 가운데, 11월 기준으로 **10%**만 확보되었습니다. 재원 부족과 추방 위험이 커지면서, 2026년 레바논 내 시리아 난민의 삶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 레바논에서 국제구조위원회의 활동

국제구조위원회는 2012년부터 레바논에서 활동하며, 레바논 시민과 난민을 대상으로 긴급 및 중장기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보호·교육·경제 지원은 물론, 위기의 영향을 받았거나 회복 중인 사람들을 위한 정신건강 및 모자보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레바논 시돈에서 한 소녀가 심각하게 파손된 가족의 집 안에서 있다. 2025년 기준 레바논 인구의 70% 이상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했다.

# 10위권 밖 10개 세계 위기국가



## 아프가니스탄

- ▶ **2,200만 명**(전체 인구의 52%)이 인도적 지원 필요
- ▶ **840만 명**이 국내 또는 국외로 강제이주
- ▶ **1,260만 명**(전체 인구의 27%)이 위기 이상(IPC 3+단계) 식량 불안정 상태
- ▶ **3,520만 명**(전체 인구의 76%)이 극빈층
- ▶ (여성의 포용, 정의, 안전 기준을 기준으로 한) 여성 평화 안보(WPS) 지수에서 **177개국 중 177위**



## 카메룬

- ▶ **290만 명**이 인도적 지원 필요
- ▶ **210만 명**(난민, 망명 신청자, 국내 실향민 포함)이 강제이주
- ▶ **260만 명**이 위기 이상(IPC 3+단계) 식량 불안정 상태
- ▶ 치안 불안으로 학교 밖 어린이 **626,000명**

상단 사진: 2024년 4월, 아프가니스탄 라그만(Laghman) 주를 휩쓴 홍수 이후 9세, 14세, 12세의 세 어린이가 파괴된 집의 잔해 속에 서 있다. 도로와 교량, 전력선이 파괴되면서 인도적 지원을 전달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졌다.

하단 사진: 분쟁의 영향을 깊게 받고 있는 지역인 카메룬 북부의 국내실향민 캠프 쿠르기(Kourgui)에서, 파네 도고(Fanné Dogo)가 임시로 지어진 거처들 사이에 서 있다.

## 차드

- ▶ **400만 명**이 인도적 지원 필요
- ▶ **210만 명**(난민, 망명 신청자, 국내 실향민 포함)이 강제이주
- ▶ **330만 명**이 위기 이상(IPC 3+단계)의 식량 불안정 상태
- ▶ 노트르담 글로벌 적응 이니셔티브 기준 **세계 1위**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



## 콜롬비아

- ▶ **690만 명**이 인도적 지원 필요
- ▶ **730만 명**이 국내에서 강제이주 (전 세계 3번째 규모)
- ▶ **840만 명**이 분쟁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거주
- ▶ 무장 단체의 어린이 징집은 2021~2024년에 **1,000%** 증가
- ▶ **670만 명**이 극빈층



사진: 슈나이더 멘도사(Schneider Mendoza) / 게티이미지

## 니제르

- ▶ **260만 명**이 인도적 지원 필요
- ▶ **93만 8,000명**(난민, 망명 신청자, 국내 실향민 포함)이 강제이주
- ▶ **220만 명**이 위기 이상(IPC 3+단계)의 식량 불안정 상태
- ▶ 5세 미만 어린이의 **47%**(중증 급성 영양실조 어린이 40만 명 포함)가 만성 영양실조 상태
- ▶ **937개** 학교가 치안 불안으로 폐쇄



상단 사진: 차드 동부 밀레(Milé) 캠프에 거주하는 수단 출신 어머니 메디네 아바스 이삭(Mediné Abbas Issak)이 국제구조위원회(ICRC) 이동식 의료 클리닉에서 받은 땅콩 기반 치료식으로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아들 중 한 명에게 음식을 먹이고 있다. 수단의 폭력을 피해 탈출한 많은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 과밀한 캠프에서 식량 불안정에 직면해 있다.

중단 사진: 콜롬비아 티부(Tibú)에서, 지역 내 폭력적 충돌로 강제 이주를 겪은 가족들이 베네수엘라로 향하기 위해 타라(Tarra) 강을 건너는 카누에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하단 사진: 반복되는 가뭄의 영향을 받아온 니제르 사본 마치(Sabon Machi) 지역에서, 수수 재배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유엔 호송대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다.



## 나이지리아

- ▶ 북동부 지역의 **590만 명**은 인도적 지원 필요
- ▶ **3,060만 명**(전 세계 최대)이 위기 이상(IPC 3+단계)의 식량 불안정 상태
- ▶ **350만 명**(전 세계 2번째로 큰 규모)의 어린이가 이 중증 급성 영양실조
- ▶ **1,050만 명**은 치안 불안으로 학교 밖 어린이
- ▶ **7,300만 명**(전 세계 최대)은 극빈층



## 소말리아

- ▶ **480만 명**(전체의 25%)이 인도적 지원 필요
- ▶ **440만 명**이 위기 이상(IPC 3+단계)의 식량 불안정 상태
- ▶ 어린이 **185만 명**(중증 급성 영양실조 42만 건 포함)이 급성 영양실조
- ▶ **250만 명**이 가뭄 영향을 받는 지역에 거주
- ▶ 2025년에 **7,000명** 이상(2024년 대비 40% 증가)이 분쟁과 관련하여 사망

사진: 카심 유수프(Kasim Yusuf) / 게티이미지



## 시리아

- ▶ **1,650만 명**(전체의 67%)이 인도적 지원 필요
- ▶ **610만 명**이 국내에서 강제이주
- ▶ **910만 명**이 급성 식량 불안정 상태
- ▶ **250만 명**의 어린이가 치안 불안으로 학교 밖 이동
- ▶ 인구의 **66%**가 극빈층

상단 사진: 나이지리아 마이두구리(Maiduguri)에 위치한 국제구조위원회(IRC) 지원 의료 클리닉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샤 불라마(Aisha Bulama)가 어머니에게 꼭 안겨 있다. 아이샤는 중증 급성 영양실조 진단을 받았다.

중단 사진: 극심한 기상 현상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는 소말리아 딘수르(Dinsoor)에서, 파두모 압디누르 후센(Fadumo Abdirur Husen)이 가족을 위해 물통을 나르고 있다.

하단 사진: 시리아 알레포(Aleppo)에서 시리아 보안군과 비국가 무장 단체 간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민간인들이 해당 지역을 떠나고 있다. 이들 가족은 알레포 내 또는 더 먼 지역에서 안전을 찾을 예정이다. 현재 시리아에서는 600만 명 이상이 국내에서 강제 이주된 상태이다.



## 우크라이나

- ▶ **1,080만 명**(전체의 29%)이 인도적 지원 필요
- ▶ **910만 명**이 국내 또는 국외로 강제이주
- ▶ 2022년 2월 이후 병원, 의료 기반시설, 의료 종사자에 대한 공격은 **2,000건**
- ▶ 인도적 접근 제약 심각도는 **5점 만점에 4점**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

## 예멘

- ▶ **2,310만 명**(전체의 57%)이 인도적 지원 필요
- ▶ **450만 명**, 국내에서 강제 이주된 국내 실향민 수
- ▶ **1,810만 명**이 식량 불안정 상태(IPC 3단계 이상) 이 중 41,100명은 최고 단계(IPC 5단계)에 해당
- ▶ 어린이의 **50%**(중증 급성 영양실조 어린이 53만 7,000명 포함)가 급성 영양실조 상태



상단 사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Kharkiv)에서 주거용 건물 인근에 폭탄이 떨어지면서, 마리나(Maryna)와 그녀의 아들은 날아온 유리 파편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두 사람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단 사진: 예멘 알달리(Al-Dhale'e)에서 국제구조위원회 의료 담당 직원이 2세 말렉(Malek)의 중상완 돌레를 측정해, 영양실조에서 완전히 회복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연구방법론

국제구조위원회는 매년 인도적 상황이 가장 악화될 위험이 있는 20개 국가를 선정하기 위해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결합한 다단계 분석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 정교한 과정을 통해 국제구조위원회 분석팀은 무력 분쟁, 경제 불안정, 기후변화, 그리고 기타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다양한 종류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과 그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분석 방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별도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에는 그 분석 과정의 간략한 개요를 제시합니다. 2026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 또는 국제구조위원회의 기타 위기 분석 작업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risis.Analysis@Rescue.org](mailto:Crisis.Analysis@Rescue.org)

## 1단계

### 74개의 정량적, 정성적 변수를 사용한 초기 “위험 식별” 작업

국제구조위원회 세계 위기국가 분석팀은 Verisk Maplecroft, INFORM, 덴마크 난민 위원회, 외교 관계 위원회, 국제 위기 그룹, 무력 분쟁 위치 및 사건 데이터 (Armed Conflict Location and Event Data, ACLED), 세계 은행,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Varieties of Democracy, V-Dem), ACAPS를 포함한 14개의 다양한 데이터 세트에서 74개의 정량적, 정성적 변수를 수집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변수에서 일관되게 위험신호가 표시된 국가들을 식별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출처에서 상위 25개국으로 분류되었거나, 정성적으로 볼 때 향후 1년 동안 주요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평가된 국가들이 이에 포함됩니다.

## 2단계

### 내부 국제구조위원회 전문가를 통한 초기 분석 검증

세계 위기국가 분석팀은 다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내부와 외부 전문가들의 통찰을 비교하여 초기 분석을 검증했습니다.

- ▶ 각각의 국제구조위원회 지역 사무소(중동과 북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가 설문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설문에서 향후 1년 동안 가장 큰 인도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는 국가를 1에서 3까지의 척도(3이 가장 높은 위험)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각 국가에 대한 정성적 통찰을 공유했습니다.
- ▶ 각 지역 사무소는 해당 지역의 인도적 위기가 왜 악화되는지에 대한 관점을 공유해, 주제 분석인 ‘새로운 세계, 무너진 질서’ 분석에 반영했습니다.

이 두 단계를 통해 세계 위기국가 분석팀은 국제구조위원회 전 세계 약 4만 명의 직원과 자원봉사자의 현장 경험과 통찰을 분석에 반영할 수 있었으며, 이는 세계 위기국가 선정과 보고서 서두의 주제별 분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 의료진이 예멘 알달리(Al-Dhale'e)에 위치한 국내 실향민 캠프에서 생후 9개월 된 바라아(Bara'a)를 위해 처방전을 작성하고 있다.

### 3단계

#### 1단계와 2단계에서 얻은 통찰을 결합하여 최종 세계 위기국가 목록과 상위 10위까지의 순위를 도출

세계 위기국가 분석팀은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정량적, 정성적 통찰을 결합하여 최종 순위가 매겨진 국가 목록을 작성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주요 기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단계에서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된 순위
- ▶ 2단계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정량적 순위와 정성적 정보
- ▶ 초기 후보 목록에 포함된 국가에서 인도적 위기가 추가로 악화될 위험을 식별하기 위해 국제구조위원회 세계 위기국가 분석팀이 정성적 분석을 실시
- ▶ 국제구조위원회의 긴급 상황 분류 시스템을 통해 측정된, 2025년 동안 이 국가들에서 발생했던 긴급 상황의 규모와 심각성
- ▶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OCHA)을 통해 제공된 글로벌 인도주의 개요 (Global Humanitarian Overview)와 각 국가별 인도적 지원 필요성 개요 (Humanitarian Needs Overviews)
- ▶ ACAPS 데이터와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며 국제구조위원회 팀의 정성적 통찰과 접근에 대한 전문성을 결합한 인도적 접근 제한 분석

### 4단계

#### 국가별 섹션 작성 및 주제별 분석

세계 위기국가 2026 보고서 전반부의 ‘새로운 세계, 무너진 질서’ 분석과 후반부의 국가별 프로파일은 1에서 3단계까지의 분석뿐만 아니라, 다음 출처에서 제공된 데이터와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 식량 불안정 관련 데이터: 통합 식량 안보 단계 분류(IPC Info), 기근 조기경보 시스템 네트워크(FEWS NET), 식량 안보 정보 네트워크(FSIN)
- ▶ 강제이주 관련 데이터: 유엔 난민 기구(UNHCR), 근동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사업 기구(UNRWA), 내부 이주 모니터링 센터(IDMC)
- ▶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 관련 데이터: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OCHA)
- ▶ 인도주의 활동가에 대한 공격 관련 데이터: 인도주의 활동가 보안 데이터베이스(AWSD), 교육에 대한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연합(GCPEA),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격 관련 데이터: 의료 서비스 공격에 대한 뉴스 브리핑 자료 (Insecurity Insight)
- ▶ 거버넌스와 극심한 빈곤 관련 데이터: 세계 은행(WB), 세계 빈곤 시계(World Data Lab)
- ▶ 분쟁 관련 데이터: 무력 분쟁 위치 및 사건 데이터 프로젝트 (ACLED), 욕살라 분쟁 데이터 프로그램(UCPD)
- ▶ 기후 재난 관련 데이터: 국제 통화 기금(IMF)의 기후변화 대시보드, 국제 재난 데이터베이스(EM-DAT)
- ▶ 가정, 지역사회, 보다 폭넓은 사회에서 여성의 복지 및 권한에 대한 지수: 조지타운 여성, 평화, 안보 연구소(WPS)
- ▶ 기후변화 및 글로벌 과제에 대한 취약성 및 대비 지수: 노트르담 글로벌 적응 이니셔티브(ND-GAIN)
- ▶ 경제 및 금융 관련 데이터: 유엔 OCHA의 금융 추적 서비스 (FTS), 국제 통화 기금(IMF), 세계 은행 그룹, 유엔 개발 프로그램(UNDP)의 인간 개발 지수(HDI), 기후 재정 업데이트 데이터 대시보드(Climate Funds Update)
- ▶ 기타 인도주의 관련 언론과 연구소 공개 보고서

# 감사의 말

국제구조위원회 세계 위기국가 분석팀은 올해의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에 기여해 주신 국제구조위원회 내외의 모든 동료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보고서는 국제구조위원회의 다양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연구와 분석의 결과물로, 조직 내 많은 구성원들이 보고서의 분석, 프로그램 개발,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전반에 걸쳐 귀중한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올해 세계 위기국가 목록 작성에 핵심적인 기여를 한 켄 소페르(Ken Sofer)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Verisk Maplecroft, ACLED, 덴마크 난민위원회(DRC),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OCHA) 등 여러 기관이 데이터 접근을 제공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케냐 하가데라(Hagadera) 난민캠프에서 국제구조위원회 심리사회 사례관리 담당자로 활동하는 마리암 압디(Mariam Abdi)는 성별 기반 폭력 생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녀는 2년간의 현장 경험과 함께 여성과 소녀의 보호와 역량 강화를 위한 강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제구조위원회는 전쟁과 분쟁, 재난과 기후 위기 등의 인도적 위기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생존과 회복, 삶의 재건을 지원하는 세계적 인도주의 기구입니다.

1933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국제구조위원회의 전신이 될 조직의 설립을 도왔습니다. 현재 우리는 전 세계 40개 이상의 인도적 위기에 처한 국가들과 유럽,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독창성, 불굴의 의지, 그리고 희망적인 태도는 우리가 누구인지 핵심입니다. 우리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지원하며, 개인과 지역사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특히 여성과 소녀들의 독특한 필요를 항상 우선시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QR 코드를 스캔해 후원에 참여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국제구조위원회

**Rescue.or.kr**